

SPECIAL THEME: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사유하는 계절 : 빛이 된 노래>

예술과
만남



CONTENTS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5년 12+2026년 01월
통권 177호
ISSN 2234-5949



발행일 2025년 12월 8일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김상희
편집장 임선미
편집 담당 김규량, ACE(예술과만남 편집회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6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편집·디자인 문화공감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예술과만남>을 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SPECIAL

- 06 VIEW
어둠을 이겨내는 한 줄기 희망의 음악
경기시나위 송년음악회 <사유하는 계절: 빛이 된 노래>의 감상 키워드
- 10 INTERVIEW
클래식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감동을 연주하다
조윤경 첼리스트

S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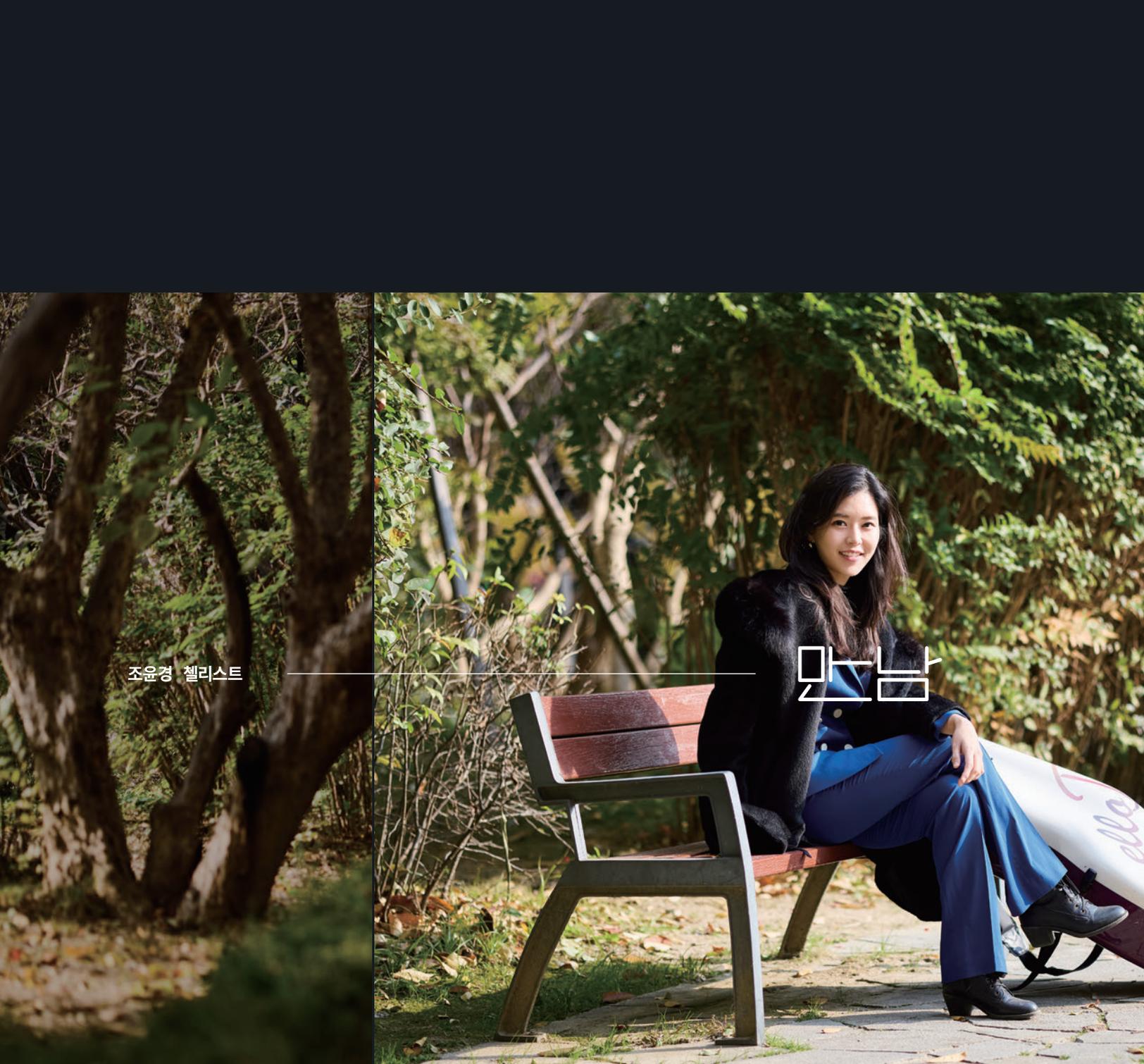
- 14 PREVIEW
① 이토록 아름다운 우울 앞에서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I <비창>
- ② 트로트 선율로 풀어낸 가족의 재발견
경기도극단 <명랑가족>
- ③ 반짝반짝, 청년의 꿈이 무대 위에서 빛나다
<2025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 24 REVIEW
① 정조의 자리에서 태평무의 우아한 손길이 가을비에 녹아들다
경기도무용단 <찬연의 행궁>
- ② 불꽃처럼 찬란한 축포와 여운 사이, 피아노라는 거대한 우주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오프닝 콘서트>
- ③ 가을밤, 음악에 물든 작은공원
경기팝스앙상블 <팝스 콘서트>

INSIGHT

- 36 ART AND THE CITY
바르셀로나, 시간의 걸 따라 흐르는 도시와 동방박사의 행렬
- 42 ATTRACTION
부산, 영화를 담은 거리들
- 48 ARTIST TALK
관객과 30년, 세 배우의 진한 무대 이야기
경기도극단 임미정, 강아림, 이충우 배우와의 인터뷰
- 52 ON & OFF
공연, 믿어되다
- 54 ESG & ART SCENE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GGAC STORY

- 58 ZOOM IN
렌즈에 담은 예술, 온라인으로 전하는 감동
<예술방송국> 유지우·조정우 PD
- 62 GGAC NEWS
- 64 CALENDAR
- 66 EPILOGUE

A photograph of a woman with long dark hair, wearing a black fur coat and blue trousers, sitting on a wooden bench in a park. She is holding a violin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with a slight smile.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green trees and foliage. The text '조윤경 첼리스트' is on the left, and '만남' is on the right.

조윤경 첼리스트

만남

MINI INTERVIEW

“지난 <119메모리얼데이>에서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함께 <미제레레>를 10분 내외로 편곡된 버전으로 연주했는데, 이번에는 전곡을 연주해요. 첼로 혼자 연주하는 카덴차와 풍부한 음악적 질감이 더해져 훨씬 다채로운 연주가 될 거랍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첼로의 협주곡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요. 첼로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미제레레>는 라틴어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에요. 이번 송년음악회는 <미제레레>의 그 의미처럼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SPECIAL



VIEW

어둠을 이겨내는 한 줄기 희망의 음악

경기시나위 송년음악회 <사유하는 계절 : 빛이 된 노래>의

감상 키워드

INTERVIEW

클래식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감동을 연주하다

조윤경 첼리스트





시나위
계절

빛이 된 노래



2025. 12. 13.
토 16:00
경기국악원 국악당

지휘 김성진 연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김성진
합창 용인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조지용 첼로협연 조윤경(첼로덕)

관람료 전석 3만원 예매 NOL티켓 1544-2344
문의 031-289-6472~5 관람가 5세(2020년생) 이상



어둠을 이겨내는 한 줄기 희망의 음악

경기시나위 송년음악회 <사유하는 계절 : 빛이 된 노래>의 감상 키워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전통국악의 기반 위에 현대적인 재해석과 다양한 장르와의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번 송년음악회 역시 단순한 연말 공연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정서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만나는 이 무대는,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음악으로 '사유'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을 보기 전 <사유하는 계절 : 빛이 된 노래>의 감상 키워드를 몇 가지 살펴본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김성진 예술감독

키워드 ① 위로

#미제레레

#Miserere

#영혼을_어루만지는_첼로의_선율

공연의 문을 여는 1부는 첼로 협주곡 <미제레레>로 시작된다. <미제레레>는 라틴어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으로, 김성기 작곡가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위로하기 위해 작곡한 곡이다. 2025년 5월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 - Messenger> 공연에서 선보였던 이 작품이 송년음악회 무대에 다시 오르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기 위함이다.

이번 무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협연자다. 유튜브 구독자 35만 명, 최다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한 첼리스트 조윤경(첼로팩)이 협연자로 나선다. 그는 브람스 국제 콩쿠르, KBS-KEPCO 음악콩쿠르 등에서 수상하고, 베를린 슈타츠크펠레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을 역임하는 등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 받은 첼리스트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금호 영아티스트 콘서트로 데뷔한 그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도 힘쓰며 첼로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

조윤경의 첼로가 만들어내는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저음은 희생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기에 더 없이 적합하다. 첼로의 서정적이면서도 장중한 선율이 국악관현악의 전통적 음색과 어우러질 때, 관객은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음악적 위로다.



조윤경 첼리스트

키워드 ② 여정

#7악장

#독립의_서사

2부를 장식하는 이신우 작곡가의 교향적 칸타타 <빛이 된 노래>는 이번 공연의 핵심이다. 총 7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지난 8월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에서 세계 초연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나라를 잃은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독립군의 정신을 담고 있다.

<빛이 된 노래>의 7개 악장은 각각 독립운동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1악장 <노래, 짓다>는 억압 속에서도 창작의 불씨를 지피는 예술가들의 저항을 그린다. 2악장 <어둠 속으로>는 음악이 무겁게 흐르며 식민지 시대 자유를 빼앗긴 민족의 신음을 담아낸다. 3악장 <녹두꽃, 울다>에서는 소박해 보이지만 들판 가득 피어나는 녹두꽃처럼, 평범한 민중들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이룬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이 음악 속에 살아 숨 쉰다. 4악장 <의병과 독립군>은 타악기의 강렬한 리듬과 관악기의 날카로운 선율이 전투의 긴박함을 전달하며, 목숨을 걸고 싸운 독립군의 결연한 의지가 형상화된다. 5악장 <꽃이 필 때>는 해방의 기운을 예감케 한다. 음악은 점차 밝아지고, 희망의 선율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른다. 그리고 마지막 7악장 <노래, 빛이 되다>에서는 마침내 모든 것이 폭발한다. 독립을 이룬 환희, 자유를 되찾은 기쁨이 합창과 관현악의 장엄한 울림으로 전달된다. 어둠 속에서 지어졌던 노래가 마침내 빛이 되어 온 누리를 비추는 순간, 관객들은 음악을 통해 역사의 감동적인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빛이 된 노래>는 음악적 서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정신적 여정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키워드 3

울림

#합창

#국악관현악

#화음

<빛이 된 노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합창과 국악관현악의 협업이다. 이번 무대에는 최근 상임 운영 체제로 전환하며 첫선을 보이는 용인시립합창단이 함께한다. 합창은 집단의 목소리를 통해 민족의 염원과 희망을 표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형식이다. 특히 교향적 칸타타라는 장르는 관현악과 합창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웅장하고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등 전통 악기들의 섬세한 선율과 타악기의 역동적인 리듬 위에 합창단의 화성적 울림이 더해지면, 음악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가 된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용인시립합창단의 협업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음악적으로 극대화하는 최적의 조합으로 선보여진다.

키워드 4

확장

#개인에서_민족으로

#과거에서_현재로

이번 공연의 구성은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다. 1부에서는 개인의 정서, 즉 한 첼리스트의 깊은 내면적 표현을 통해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위로한다. 이는 매우 사적이고 섬세한 감정의 영역이다. 반면 2부에서는 합창과 관현악이 어우러져 민족 전체의 정서로 확장된다. 개인의 슬픔과 위로가 민족의 고통과 희망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1부의 조용하고 깊은 성찰에서 시작해 2부의 웅장하고 극적인 선언으로 나아가는 구성은, 관객들에게 개인적 공감에서 집단적 카타르시스로 이어지는 여정이 될 것이다.

키워드 5

사유

#멈춤

#성찰

'사유하다'라는 말에는 깊이 숙고하고 성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연 제목 <사유하는 계절>에는 이러한 의미가 녹아 있다. 송년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에서 잠시 멈춰 서서 음악을 들으며,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이다. 이번 공연은 여기에 역사적 성찰까지 더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2025년, 우리는 과연 80년 전 그날의 의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자유와 정의, 평등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일깨운다.

키워드 ⑥ 빛

#희망의_메시지

'사유'와 함께 <빛이 된 노래>라는 제목은 이 공연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부르던 노래, 고문과 투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빛이 되어 비춘다는 것이다. 어둠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절망, 좌절, 두려움, 무력감 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적 감정이 어둠이다. 하지만 역사는 어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도 크고 작은 어둠과 마주한다. 개인적 고난, 사회적 불의, 시대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희망을 잃고 좌절한다. 하지만 <빛이 된 노래>는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으며,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언젠가는 빛이 온다는 보편적 진리를 음악으로 전한다. 이 메시지는 위로이자 격려이며,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다.

키워드 ⑦ 지금

#희망의_음악이_필요한_시대

2025년 연말,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제 정세는 불안정하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지며, 개인들은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 이런 시대에 8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은 “독립 정신을 되살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이번 공연의 의의를 밝혔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의 정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끝까지 싸웠던 그들의 의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며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던 그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으며,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언젠가는 빛이 온다는 것이다.

첼리스트 조윤경의 섬세한 연주, 용인시립합창단의 장엄한 합창, 김성진 예술감독의 깊이 있는 음악 해석,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풍성한 관현악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무대는,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을 깨우는 경험이 될 것이다.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사유'하는 이 귀한 시간이,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클래식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감동을 연주하다

조윤경 첼리스트

대중음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와의 접목으로 클래식의 새로운 매력을 열어가는 이가 있다. 바로 구독자 35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첼로덕'의 첼리스트 조윤경. 그는 서울대 음대를 거쳐 줄리아드 석사, 왕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2016년 영국 뮤지션스 컴퍼니 프린스 컴페티션에서 우승하는 등 탄탄한 실력을 갖춘 정통 클래식 연주자이기도 하다. 2025년 <119메모리얼데이> 공연으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첫 협연을 가진 그가 이번 12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사유하는 계절 : 빛이 된 노래>로 인연을 이어 간다. 클래식의 확장, 그 특별한 여정에 대해 들어봤다.

글. 편집실 |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Q. '첼로덱'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으세요. 첼리스트로서 최고의 과정을 밟아오셨음에도, 유튜브 채널 '첼로덱'을 시작하고 운영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널명인 '첼로덱'은 첼로에 OO덱(宅)을 붙인 말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채널명을 바꾸게 됐는데, 중의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어디 살 때 '서울덱', '어디 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첼로 안에 사는 여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남편이 지어줬어요.

사실 유튜브를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의 파급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줄곧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연습하면서 깨달은 것들이나 연습 팁 같은 걸 저만 알고 있기가 많이 아까웠거든요. 유학 생활의 잊지 못할 순간들도 남기고 싶었고요. 그래서 당시 '첼리스트 윤'이라고 해서 영상을 대여섯 개 정도 올렸다가 손을 다쳐서 귀국하게 됐어요. 10개월에서 1년 정도 악기를 쉬었는데, 그 시기가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며 가족의 권유로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아직 클래식을 연주하기에는 손 상태가 불안해서, 익숙한 곡으로 커버 연주를 시작했어요. <거룩한 밤>, 김범수의 <보고 싶다> 같은 곡들이었지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약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시작한 셈이죠. 독학으로 편집을 배우기도 했고요.

물론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것이 지금처럼 '우와' 이럴 때가 아니고, '왜 하지?' 이런 반응이 많을 때라 신경이 쓰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깊이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자라는 각오였죠.

Q.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의 첫 만남은 <119메모리얼데이> 공연이었습니다. 순직 소방관의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무대에서 <미제레레(Miserere)>를 함께 연주하셨는데, 그때의 기억이 궁금합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김성진 예술감독님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나 보더라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전에 문태국 첼리스트와 양성원 교수님과도 했던 곡이라며 공연 영상까지 보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며 준비했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Q. 클래식 첼리스트와 국악단의 협연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경기시나위와의 첫 협연은 어떠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됐어요. 런던 유학 시절 국악기와 협연



한 적이 있었는데, 음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다르더라고요. 정확한 음정과 풍부한 표현으로 협연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첫 리허설을 그냥 딱 두 번 런스루로 진행할 만큼, 손발이 딱딱 맞는 굉장히 기분 좋은 연주였어요.

더욱이 첫 리허설 끝나고 김성진 예술감독님과 40분 이상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의 개인 마스터 클래스이다시피 했어요. <미제레레> 곡에 대한 뚜렷한 해석이 있으셔서 오랜만에 음악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얼굴이 벌개질 만큼 집중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여성 첼리스트로서의 저의 장점과 단점도 정확히 짚어 주셔서, 공연에서 좀 더 저에게 맞는 세밀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Q. 클래식 첼로와 국악의 만남이 주는 시너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극 OST나 이선희님의 <인연>, 조수미님의 <나 가거든> 같은 곡에 첼로가 정말 잘 어울린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국악기와 같이 해보면 시너지가 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미제레레>는 제가 예상했던 느낌의 곡은 아니었어요. 장엄하고 현대적인 곡이었지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더 특별한 경험을 했죠. 첼로 혼자 카덴차(cadenza)를 연주할 때, 앞에서 국악기들과 연주했던 기운이 남아서인지 첼로에서 가야금과 거문고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뭔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을까요.

사람의 MBTI로 설명해 보자면, 상대적으로 직관적이고 구조, 형식, 화성법이 중요한 S의 서양 음악에, 철학적이고 심, 변주가 중요한 N의 국악이 만난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Q. 유튜브를 통해 “첼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첼로의 아름다운 소리를 알려주고 싶다”고 답하신 적이 있는데요.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분 30초라고 해요. 처음부터 30분, 1시간이 넘는 교향곡을 듣는 건 어렵죠. 그래서 제 첫 목표는 일단 첼로 소리를 좋아하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익숙한 가요를 첼로로 연주하면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사가 들리는 것 같고 이 악기가 좋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첼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5분, 10분짜리 클래식 소품도 괜찮게 들리고, 점점 첼로가 메인인 오케스트라 곡이나 실내악으로 시야가 아닌 청야(聽野, 소리가 귀에 들리는 범

위)를 넓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장벽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죠.

실제로 6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장벽이 조금씩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첼로를 직접 배우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때는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죠.

Q. 첼로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음색을 가진 악기라고 들었습니다. 조운경 첼리스트에게 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맨날 달라요. 하하. 제가 몇 개월 전에는 ‘애증의 존재’라고 했는데, 요즘은 ‘심’이에요. 사고 이후 옛날처럼 손이 돌아가지 않고, 새벽부터 몰입해 몇 시간씩 연습해야 겨우 들어줄 만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게 두려웠을 때는 애증의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내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편집에 바쁜 유투버로 연주 외에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지다 보니 오히려 첼로 자체가 저에게 심이 되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동안 함께해 온 세월이 있다고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응원하게 되었어요.

Q.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문화공연에 참여하며 무엇보다 경기도 내 문화시설에 새삼 놀라게 되었어요. 경기국악원이나 경기아트센터의 규모 있고 잘 정비된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아이를 꼭 데리고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열린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119메모리얼데이>에서의 다양한 행사들과 세심한 준비에서도 느꼈지만, 경기도는 문화 행사를 정말 잘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걸 느꼈죠. 이번 공연도 다른 부분들은 매우 만족스러우니, 미리 홍보만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어요.

Q. 이번 <사유하는 계절 : 빛이 된 노래> 송년음악회에 오시는 경기도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119메모리얼데이>에서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함께 <미제레레>를 10분 내외로 편곡된 버전으로 연주했는데, 이번에는 전곡을 연주해요. 첼로 혼자 연주하는 카덴차와 풍부한 음악적 질감이 더해져 훨씬 다채로운 연주가 될 거랍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첼로의 협주곡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요. 첼로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미제레레>는 라틴어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에요. 이번 송년음악회는 <미제레레>의 그 의미처럼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STAGE

PREVIEW

- ① **이토록 아름다운 우울 앞에서**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I <비창>
- ② **트로트 선율로 풀어낸 가족의 재발견**
경기도극단 <명랑가족>
- ③ **반짝반짝, 청년의 꿈이 무대 위에서 빛나다**
<2025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REVIEW

- ① **정조의 자리에서 태평무의 우아한 손길이 가을비에 녹아 들다**
경기도무용단 <찬연의 행궁>
- ② **불꽃처럼 찬란한 축포와 여운 사이, 피아노라는 거대한 우주**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오프닝 콘서트>
- ③ **가을밤, 음악에 물든 작은공원**
경기팝스앙상블 <팝스 콘서트>



이토록 아름다운 우울 앞에서

1 PREVIEW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I <비창>

좌석을 한자리라도 더 채우기 위해 애를 쓰는 수많은 공연 가운데, 여기 그 자체로 너무나 빛나서 홍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공연이 있다. 오는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릴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I <비창>' 이야기다. 프로그램은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콥스키의 대표작.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나선다. 상황이 이쯤 되면 홍보 담당자는 티켓을 파는 처지가 아닌 대체 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해야 할 터다.

글. 윤무진(음악 칼럼니스트)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조성진, 다시 경기필과 함께

돌이켜보면 좋은 기운은 작년 여름부터 불어오고 있었다. 지난 2024년에 10주년을 맞이한 계촌 클래식 축제에서 조성진은 김선욱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경기필과 함께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했다. 국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솔로 리사이틀, 혹은 해외 악단과의 협연이 아니면 거의 만나보기 힘든 조성진을 국내 악단의 협연자로 만나볼 수 있어 화제가 된 공연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 11월 26일, 경기필은 2025년 시즌을 발표하며 단발성 출연에 그칠 줄 알았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내년에도 경기필과 함께함을 알렸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공연이 일종의 이벤트 공연이었다면 이번 12월에 있을 정기 공연은 그 무게감이 확연히 다르다. 예정된 감동에 앞서 오늘은 조만간 만나게 될 두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가 어떻게 닮아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닮은 두 사람 -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

경기필의 이번 공연은 두 러시아 작곡가의 작품으로 채워졌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누군가에게는 인기 있는 작곡가의 작품으로 채워낸, 확실한 흥행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이겠다. 하지만, 이 두 작곡가의 만남은 그저 대한민국에서 사랑받는 음악가들의 조합만은 아니다. 생전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두 음악가의 작품은 놀랍도록 닮아있다. 아마도 그들의 기질이, 음악이 아니었다면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우울감이 그들을 닮게 했을 것이다.

먼저 차이콥스키. 언젠가 그를 우울의 대가라 다른 원고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다. 거의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생한 차이콥스키는 자신을 구원할 대상이 음악에 있음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그렇게 진로를 변경해 작곡가가 되었지만, 음악이 그를 순식간에 구원해준 것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구원이라는 것이



GYEONGGI
PHILHARMONIC ORCHESTRA
MASTERS SERIES VI

PATHÉTIQUE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위안은 있어 차이콥스키는 고통으로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음악과 함께할 수 있음에 종종 기뻐했다. 문제는 그 기쁨이 언제나 찰나처럼 지나갔다는 것이다.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써야 하는 음악 앞에서 차이콥스키는 대체로 불안해했다. 이번 공연의 첫 곡인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작곡 과정은 차이콥스키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보여주는 일례로 남아 있다. 작품을 써낸 의도는 지극히 단순했다. 작곡가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감동했고, 그 감정을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인 음악으로 옮기고 싶었다. 작품의 첫 버전은 1869년에,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1870년에 그로부터 무려 10년 뒤인 1880년, 차이콥스키는 다시 한번 작품의 개작을 시도해 지금 연주되는 판본으로 완성해 낸다.

같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곡을 써낸 프로코피예프의 작품과 달리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가사도 없고 부제

도 없다. 교향악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형태로 써낸 작품은, 그러나 두 주인공이 앞둔 비극을 눈에 보일 듯한 음악으로 아른거리게 한다. 지독한 운명이 만들어낸 비극을 많은 이들이 아름답게 기억할 거라고 차이콥스키의 작품은 말한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이 연주된다. 차이콥스키는 1840년생,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는 1873년생이다. 같은 러시아 출신임에도 역이는 상황이 좀처럼 없던 둘은, 서로를 알고는 있었다. 학창 시절 라흐마니노프는 차이콥스키의 작품을 피아노 연탄용으로 편곡하는 작업을 진행했었고, 반대로 차이콥스키는 편지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쉽게도 두 음악가가 직접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차이콥스키가 라흐마니노프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축제가 끝난 뒤 -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서두에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가 결이 비슷한 사람이라 이야기했고, 실제로 둘은 음악적으로 닮은 부분이 많았다. 그들은 고통, 슬픔, 분노, 좌절 같은 비극적인 순간조차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했다. 다만 차이 또한 있어, 우울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꽤나 달랐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라흐마니노프는 자동차 구입, 별장에서의 휴양 등 이곳저곳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았다. 그러나 차이콥스키는, 그 앞에 놓인 심연이 너무나 깊었기에 희망을 쉽사리 볼 수 없는 음악가였다. 이번 2부에서는 공연의 부제이기도 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이 연주된다. 1893년 10월 28일에 있었던 초연 무대에서 작품을 직접 지휘했던 차이콥스키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향곡이 그의 마지막을 예견하는 작품이라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소 과장된 해석일 것이다.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이 끝이 없었기에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한 기록이 여기, <교향곡 6번 '비창'>에 있다고.

1악장에서부터 차이콥스키는 아주 잘 다듬어진 비통함을 이야기한다. 언뜻 듣기에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름다움으로 반짝이는 슬픔이 여기 있다. 우아한 춤곡이 이어지는 2악장을 지나 다다른 3악장에서 교향곡은 한계 없는 즐거움을 말한다. 악장 내내 힘찬 기운을 보여주는 음악은 종지에 이르러 천장이 무너질듯한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며 마지막 화음을 연주한다. 누가 악장 간 박수를 금지했던가. 이 교향곡이 4악장으로 넘어갈 때 청중은 자신의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동작, 손뼉을 맞대는 행위를 애써 참아야 한다. 차이콥스키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축제 같은 음악 뒤에 찾아오는 4악장에서 작곡가는 끝없는 우울로 빠져들어 간다. 위에서 시작해 침잠하듯 하강하는 음표들. 첼로와 더블베이스가 함께 작품의 마지막 음을 연주한 이후에도, 그 잔향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음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듯이 공간을 짓누른다. 겨우 공연장을 빠져나간 우리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몸 안에 남아 있는 그 끝없는 슬픔을 곱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무진

음악 칼럼니스트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학을 공부했다.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워너뮤직 등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으며, 서울시향에서 발행하는 SPO매거진의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매일 듣고 매일 쓰는 삶을 위해 노력한다.

불과 몇 달 전인 1892년, 차이콥스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뒤를 이을, 전도유망한 러시아 작곡가들을 언급했다. 그곳에는 글라주노프, 아렌스키, 그리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이름이 있었다. 이에 라흐마니노프는 대단히 기뻐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절제했던 그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차이콥스키의 축복 이후 40여 년이 지난 1934년, 라흐마니노프는 수많은 사건을 통과하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사랑하던 고국을 쫓기듯 떠나 어렵게 미국에 정착했다. 이후 스위스에서 머물 별장을 마련할 정도로 라흐마니노프는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다. 빌라 세나르. 루체른 호수 근처에 라흐마니노프가 마련한 이 별장에서 그해 여름, 라흐마니노프는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썼다. 그동안 쌓인 것은 부와 명성뿐만이 아니었다. 실패와 성공을 여러 차례 경험하는 동안 작법, 특히 피아노와 관현악을 다루는 솜씨는 그 어느 때보다 유창해져 있었다. 이제는 누구나가 아는 주제로 변주곡을 써 봐도 합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났을 때, 라흐마니노프는 니콜로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시>의 마지막 곡인 '24번 카프리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양고전음악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멜로디에 라흐마니노프는 화려한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법의 힘을 입어 변주를 이어 나간다. 작품의 주재료인 파가니니의 선율을 뒤집어 낭만적인 순간을 연출하는 18번 변주를 비롯해 들을 거리로 가득한 대규모 변주곡은 평생 깊은 관심을 보였던 진노의 날 주제와 함께 당당하게 마무리된다.



트로트 선율로 풀어낸 가족의 재발견

경기도극단 <명랑가족>

연말 무대에 독특한 감성의 창작 뮤지컬이 찾아온다. 경기도극단의 2025년 신작 <명랑가족>은 트로트라는 친숙한 음악 장르를 통해 가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새롭게 조명한다.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펼쳐질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풍기는 밝은 에너지뿐 아니라 깊은 울림까지 품고 있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PREVIEW ②

GGAC ORIGINAL MUSICAL

이보다 더 명량한 유언은 없었다 웃픈 가족의 유쾌한 도전

‘노래하고 춤춰 문상객들을 열광시켜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다.’ 뮤지컬<명량가족>은 한 시대를 풍미한 코미디언이자 트로트 가왕이었던 ‘심해룡’의 사후, 남겨진 네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각자의 상처와 오해를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다. 작품은 ‘유산’을 단순한 물질적 상속이 아닌 상처, 기억, 책임의 상징으로 확장하며,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보편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평생 으르렁대며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던 네 남매. 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눈물과 화해의 순간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며,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지는 따뜻한 가족 드라마로 완성했다.



트로트, 세대를 잇는 선율

우선 음악적 측면에서 <명량가족>은 주목할 만한 시도를 보여준다. 작곡가 J.ACO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 비주얼, 퍼포먼스 편곡을 중점으로 뮤지컬의 서사를 결합해, 관객이 쉽게 공감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트로트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음악 장르 중 하나다. 특히 부모 세대에게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음악이며, 젊은 세대에게도 최근 트로트 열풍을 통해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 작품은 이러한 트로트의 대중성을 활용하면서도, 뮤지컬이라는 형식을 통해 예술적 완성도를 더한다. 대중에게 친숙한 트로트 선율을 현대적 뮤지컬 어법으로 재해석한 음악은, 트로트의 후렴 구조와 반복 리듬을 뮤지컬 넘버 형식으로 변주해 감정의 고조를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관객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흥겨운 곡부터 마음을 울리는 발라드 넘버까지, 다채로운 음악적 구성이 기대를 모은다.

연출 노우성, 극본 노우진, 작곡 J.ACO의 만남

경기도극단의 창작 역량에 연출, 극본, 음악 외부 창작진의 전문성이 더해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연출에 제17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작품상, 제6회 더뮤지컬어워즈 연출상·극본상·작품상, 제1회 예그린어워즈 연출상·극본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노우성, 대본·작사에 노우진, 작곡·편곡에 J.ACO가 협업하여 탄탄한 서사와 음악적 깊이를 더했다. 세 명의 주요 창작진은 경기도극단 배우들의 개성과 무대 감각을 고려한 세밀한 연출로, 단체의 역량을 극대화한 창작 뮤지컬을 완성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창작진이 극단에 작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극단의 정체성과 배우들의 특성을 살려낸 맞춤형 창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극단의 진심 어린 무대

<명랑가족>의 또 다른 강점은 경기도극단 단원들이 전면에 나선다는 점이다. 강아림, 이충우, 임미정, 윤재웅, 장정선을 비롯한 20여 명의 단원들이 출연해 무대의 중심을 이끈다.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단체 특유의 연기 호흡과 에너지가 작품의 큰 자산이다.

단원들의 섬세한 감정선과 호흡, 그리고 진정성 있는 무대는 극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진정성 있는 연기력과 세밀한 앙상블이 극의 설득력을 더하고, 실제 가족처럼 밀도 높은 관계를 표현해 극단만의 색깔을 극대화했다는 평이다.

<명랑가족>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가족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무대다. 웃음과 눈물,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진심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이 작품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과 함께할 수 있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냈다.

연출을 맡은 노우성은 "<명랑가족>의 명랑함은 단순한 유쾌함이 아니라 상처를 직면하면서도 다시 웃을 수 있는 태도의 윤리"라며 "경기도극단 단원들의 진심 어린 연기가 만들어내는 울림이 관객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극 중 인물들이 감당해야 했던 눈물과 화해의 순간은, 관객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한 가족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마주하며, 경기도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이 웃픈 <명랑가족>의 무대를 기대해 본다. 트로트 선율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경기도극단 <명랑가족>

일시 12월 12일(금) 19:30 / 12월 13일(토)~14일(일) 16:00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금액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031-230-3317

반짝반짝, 청년의 꿈이 무대 위에서 빛나다

<2025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무대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 청년예술인들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뛴다. 수없이 연습했던 동작, 되뇌었던 대사, 조율했던 음색이 마침내 관객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예술인들의 꿈의 무대가 된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가 총 10회에 걸쳐 관객과 만난다.

글. 편집실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PREVIEW
③

청년예술인에게는 성장을, 경기도민에게는 감동을

음악, 무용, 연극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재능을 갖춰있음에도 청년 예술인들이 무대 경험을 쌓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경기아트센터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는 바로 이러한 청년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무대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공연 제작부터 상연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창작 및 제작 중심의 지원이 핵심이다. 지난해에는 음악(서양·한국음악), 무용(한국·현대무용), 연극 5개 장르에서 선발된 174명의 청년예술인이 전문가 지도하에 역량을 계발하고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는 청년예술인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경기도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공공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규모와 장르가 한층 확대되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음악(서양·한국·실용음악), 무용(한국무용·발레), 연극 등 6개 장르에서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예술인 207명이 선발되었다. 작년보다 33명이 늘었고, 실용음악과 발레라는 장르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청년예술의 스펙트럼이 한층 풍성해졌다.

선발된 청년예술인들은 경기도예술단원 및 외부 전문 예술인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공연을 준비했다. 실기 교육부터 무대 매너, 관객과의 소통법까지 전문 예술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무대는 11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될 계획이다.

서양음악부터 연극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향연

첫 무대는 11월 4~5일 저녁 7시 30분 열린 서양음악 공연이었다. 클래식을 전공한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 협연과 독주회를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 무대였다. 이어 11월 8일 오후 5시와 11월 19일 저녁 7시 30분에는 윤종현 오디세이, 토닉하우스 등 실용음악 공연이 이어졌다. 재즈, 팝,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소극장을 가득 채웠다. 이어, 11월 11~12일에는 한국음악 공연이 관객을 맞이했다.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 무대에서 국악을 전공한 청년 연주자들의 새로운 시도를 만날 수 있었다.

12월 무대도 놓칠 수 없다. 12월 17일에는 발레 공연이, 12월 20일 오후 5시에는 한국무용 공연이 열린다. 클래식 발레의 우아함과 한국무용의 정취를 통해 청년 무용수들의 열정과 기교를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연극이다. 12월 26일 저녁 7시 30분, 12월 27일 오후 5시에는 청년 배우들이 연출가, 스태프들과 함께 만들어낸 작품을 통해 연극만이 줄 수 있는 생생한 감동을 전달한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선발작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도내 순회 공연도 진행했다. 과천, 구리, 군포, 김포, 양주 등 5개 지역 공연장과 협업하여 총 6회의 순회공연을 추진한 것이다.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수한 작품은 재공연과 순회공연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청년예술인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자신의 예술적 성취가 인정받고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모두에게 열린 무대, 전석 무료

무엇보다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는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티켓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편하게 공연장을 찾아 청년 예술인들의 열정과 재능을 경험할 수 있다. 7세 이상 관람 가능한 이 공연들은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도 좋은 문화 체험이 될 것이다.

기성 예술가들의 완숙한 무대도 좋지만, 청년예술인들의 패기와 실험정신이 담긴 공연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때로는 미숙할 수 있지만, 그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녀들에게 또래의 청년예술가들이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술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상희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청년예술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그 경험이 경기도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은 사회의 거울이자 미래를 비추는 창이다. 청년예술인들의 작품 속에는 동시대의 고민과 희망, 새로운 시도와 실험이 담겨 있다. 이들이 무대에 서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예술가가 데뷔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풍부해지는 과정이다.

부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청년예술인들의 그 순수한 열정과 재능을 함께 즐기고 박수를 보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박수와 환호 속에서 미래의 거장이 탄생하고, 관객은 감동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공연 일정과 자세한 정보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예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반짝반짝한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25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일시 11월 4일(화)~12월 27일(토)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금액 전석 무료
문의 031-230-3200

정조의 자리에서 태평무의

우아한 손길이 가을비에 녹아 들다

경기도무용단 <찬연의 행궁>



정조가 실제 집무를 보던 화성행궁 유여택. 2025년 10월 3~4일, 이곳에서 경기도무용단이 조선 개혁 군주의 이상을 춤으로 되살린 <찬연의 행궁>을 선보였다. 역사의 장소를 그대로 담은 기획이 한 수다. 예(禮)와 악(樂)으로 태평성대를 꿈꿨던 정조의 의지를 전통 가무극 형태로 풀어낸 이 공연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글. 안치용(인문학자·영화평론가)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REVIEW
①



장소감이라고도 하는 '장소의 감각(Sense of Place)'은 어떤 물리적 공간을 위치(Location)가 아닌, 개인과 집단 나아가 공동체의 경험, 감정, 기억, 그리고 문화적 의미가 결부된 특별한 영역(Place)으로 인식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호텔에서선 로케이션이 중요하지만, 장소감에서는 익명의 수다한 고객이 머물고 가는 어떤 건물이 아닌 특정한 인간적 자취가 묻어 있는 '그곳'이 중요하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프랑스 소설가 아니 에르노의 대표작 중 하나가 『La Place』(1983년)이다. 영어로 직역하면 'The Place'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어 번역본 제목은 『남자의 자리』이다. 에르노의 이 소설에서도 '장소의 감각'은 도저해 소설을 이루는 뼈대 같은 게 된다.

테오도르 아도르노, 발터 벤야민 등 20세기의 저명한 비평가나 문필가가 어떤 식으로든 '장소의 감각'을 거론했는데, '장소의 감각'과 관련한 방식에서 그들의 시대가 시대인지라 역사성을 지시하는 비(非)개인 차원의 인식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시대의 장소를 예민하게 천착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예술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관계미학을 추창하고 실천하는 진영에서 이 '장소의 감각'이 유용할 수 있다. 관계미학은 참여와 과정을 중시하여 이른바 오브제보다, 상호작용의 경험에 방점을 찍은 미학이자 예술론이다. 또한 열려있고, 재구성이 가능하며, 다양한 진입로를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리즘(Rhizome)'이란

개념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질 들뢰즈를 떠올릴 수 있다. 들뢰즈는 관계미학보다는 관계의 정치적 재구성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둘이 연결되는 지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로케이션이나 공간이 아닌 장소를 통한, 또 관계를 매개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은 공연예술 등에서 분명 유망한 시도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하듯 '장소의 감각'을 포섭한 관계미학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할 법한데, 그 '관계'라는 게 예술적 맥락을 벗어나면 소멸하는 '마이크로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것과 이 미학적 관점이 예술보다는 사회학, 때로 너무 진지해지면 역사 비평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난점을 들 수 있다.

화성이란 곳의 '장소의 감각'

2025년 10월 3~4일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유여택에서 열린 '2025 경기도무용단 기획공연' <찬연의 행궁>을 두고는 공연 자체의 완성도를 논하기에 앞서 기획의 감각이 돋보였다는 말을 해야 한다. 정조와 화성행궁, 그리고 그의 숨결이 녹아있는 유여택에서 펼쳐진 전통무용 공연은 그 자체로 강한 의미가 있고 나아가 뜻밖의 흥행성을 기대할 직하다. 현재의 역사가 아니라, 또 아우슈비츠처럼 침예한 역사가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고 그렇



지만 남의 일 같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정조의 이야기가 바탕에 깔린 춤 공연을 다름 아닌 화성행궁에서 연다는 생각을 그동안 왜 해보지 못했을까.

“이번 작품은 춤 사극 드라마 형식을 바탕으로 조선의 개혁 군주 정조의 생애를 조명합니다. 예(禮)와 악(樂)으로 국가의 태평성대를 맞이하고자 했던 임금의 고민과 결단을 전통 가무극의 언어로 풀어내었습니다. 특히 공연의 무대가 되는 유역택은 실제 정조의 집무실이었던 공간으로, <찬연의 행궁>은 예술성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경기도무용단은 화성행궁의 문화사적 의미를 현대 예술로 재해석하여, 관객 여러분께 감동과 사유의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정조의 이상이 깃든 화성행궁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이 한층 강화되고,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소 길지만 김상희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축하의 글(공연 브로셔)의 일부를 인용했다. ‘장소의 감각’을 포섭한 관계미학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김 사장이 다른 말로 풀어놓은 것이었기에 반가웠다.

수원화성 연구자 김준혁의 해설 또한 유익했다. “화성행궁에서 개최되었던 정조의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서 개최된 궁중무용이 남녀가 한자리에서 공연한 (한국) 최초의 공연이자, 한양

㉞

아무래도 가장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춤은 태평무였을 것이다.

춤 자체가 화려하고 우아한 미를 강조하는 태평무는 원래 여성 무용수의 독무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군무로 안무했다.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이 대중적으로 잘 드러나기에 관객 호응을 끌어내기 용이한 공연이다.

더불어 전통 춤을 처음 접한 한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전통무용의 매혹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춤이 태평무이기에

이 춤을 영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㉟



과 수원외의 무용수가 연합하여 개최한 합동 공연, 여기에 더해 민간의 무용을 궁중의 무용으로 받아들여 함께 어우러진 통합의 공연이었다”라는 의미는 이번 공연을 더 뜻깊게 한다. 무용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공연을 계승하고 새롭게 해석한 셈이 된다.

전통무용 종합선물세트

작품은 총 3막 8장으로, 한국 전통무용이 사실상 망라된다. 권법무, 훈령무, 무고, 태평무, 진쇠춤, 강강술래로 구성했다. 공연 성격상 군무로 연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강술래를 뒷부분에 배치해 종합선물세트의 대미를 장식하게 한 것도

이해되는 맥락이나, 공간의 한계로 더 활발한 참여의 장을 만들지 못한 것은 사정을 짐작하면서도 살짝 아쉽다.

아무래도 가장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춤은 태평무였을 것이다. 춤 자체가 화려하고 우아한 미를 강조하는 태평무는 원래 여성 무용수의 독무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군무로 안무했다.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이 대중적으로 잘 드러나기에 관객 호응을 끌어내기 용이한 공연이다. 더불어 전통 춤을 처음 접한 한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전통무용의 매혹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춤이 태평무이기에 이 춤을 영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군무로 구성하되 다른 색감의 한복을 입힌 한 명의 무용수로 강화하여, 군무와 독무를 조화했다. 가을 하늘 아래 유여택을 배경으로 여자 무용수가 태평무 장단에 맞춰 선보인 손짓 등 절제된 농염의 몸짓이 충분한 볼거리가 됐다. 독무 격인 무용수를 더 돋보이게 안무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무용이든 발레든, 아무래도 관객은 여자 무용수의 동작과 표정, 몸의 선율에서 춤의 정수를 향유하기 마련이다. 지금이 나쁘지 않으나 태평무를 더 화려하면서도 단아하게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 볼 직하다. 때로 날아갈 듯 접힌 여자 무용수의 손가락 하나에 반해 춤에 빠져들기도 하는 법이지 않은가.

앞서 필자나 김 사장이 논했듯, ‘장소의 감각’이 공연 내내 관람자의 수용 감각을 저리게 했다. 이른바 오브제 격인 보통의 공연장을 떠나 평안하지 않은 이동식 의자에 앉아 지근에서 목도한 특별한 경험은, 공연자의 숨결이 닿을 듯한 그 현장감이 장소감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관객에게 행복한 가을밤을 선사했다.

기민하게 나눠준 우비를 입은 채 살짝 가을비에 젖어 공연장을 나오며, 정조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성 탐방의 피날레로 이 공연을 보는 경험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다. (가을비가 장소감을 더 고양했다.) 경기관광공사 등과 경기아트센터의 협업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스토리가 있는 관광상품 같은 것을 개발해도 좋겠다. 정조의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서 개최된 궁중 무용의 의의까지 곁들여, 고증을 더하고 섬세한 준비를 갖춘다면 꽤 괜찮은 관광이 되지 않을까.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공연 기획은 미래 세대에게 기억의 의무를 전하는 정치적·윤리적·미학적 실천이다. 화성에 녹아있는 정조의 꿈과 이상은 성의 돌뿐 아니라 우아한 춤사위로도 기억의 물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이자 인문학자. 경향신문 기자로 활동했으며, 영화평론가로 영화, 문학, 춤 등 예술 전반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노벨문학상 모두 읽기』(2025년) 등 40여 권의 저서가 있다.



불꽃처럼 찬란한 축포와 여운 사이, 피아노라는 거대한 우주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 오프닝 콘서트>

10월 26일 화려한 막을 올린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라벨 탄생 150주년, 쇼스타코비치 타계 50주년을 기념한 올해 오프닝 콘서트는 경기필하모닉과 김선욱 음악감독의 지휘,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와 박종해 두 피아니스트가 함께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즐거움'이라는 교집합으로 만난 두 거장의 피아노 협주곡은, '88개 건반'이 품은 무한한 우주를 증명하는 찬란한 축포였다.

글. 고승희(헤럴드경제 기자)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REVIEW

②

트럼펫의 팡파르는 불꽃처럼 찬란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 경기필하모닉을 이끄는 김선옥 음악감독은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에서 무거움을 지웠다. 가볍게 부서지는 금관의 소리는 억눌린 현실을 벗고 내일로 내달리는 추동 엔진이었다.

'88개의 건반'을 위한 축제가 다시 막을 올렸다. 지난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열린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단일 악기 최대 축제인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은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과 함께 시작됐다. 축제는 피아노와 피아니스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듯 그간 다양한 '피아노 실험'으로 관객과 만났다. 무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할 만큼 많은 숫자의 피아노가 무대로 올라온 적도 있다. 15대의 피아노, 30명의 연주자(2023년)가 연주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지금도 회자하는 무대다.

라벨과 쇼스타코비치, 두 거장의 그림자 속에서

유독 기념할 만한 '사건'이 많은 올해는 모리스 라벨(1875~1937) 탄생 150주년,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1975) 타계 50년의 의미를 담아 '라벨 150 & 쇼스타코비치 50'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오프닝 콘서트는 주인공인 피아노를 부각하되, 두 거장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으로 시작한 무대는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와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 라벨의 <라 발스>로 이어졌다. 각각의 곡은 유기적으로 엮였다. 무엇보다 두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은 거창하고 심오하기보단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곡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라벨은 "모차르트와 생상스처럼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했고, 쇼스타코비치는 "가장 즐겁게 쓴 작품"이라고 했을 만큼 두 협주곡 사이의 교집합은 충분했다. 경쾌한 시작은 서로 다른 두 피아니스트를 통해 대조의 미학을 보여줬고, 피아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다.

슈퍼스타(피아노)의 등장에 앞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MC처럼 '축전 서곡'은 등장했다. 이 곡의 출발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쇼스타코비치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37주년 기념 콘서트를 위한 짧은 곡을 요청받고 불과 3일 만에 이 곡을 써 내려간다. 스탈린 체제에서 '형식주의의 범죄를 저지른 작곡가'라고 비난받으며 요동치는 날들을 보냈던 쇼스타코비치는 그의 죽음 이후 서랍 속에 잠들었던 악보를 다시 꺼냈다. 초연은 1954년. 경기필하모닉은 모든 음표에 생기 넘치는 역동성을 입혔다. 이날의 축포는 본격적으로 등장할 주인공을 향한 찬가처럼 들렸다.

이제 피아노가 등장할 시간.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피아니스트들의 저력과 잠재력을 길어 올리는 축제인 만큼 오프닝 콘서트에선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했다.

세계 유수 콩쿠르를 휩쓸었고 한국에서 수많은 실내악 무대는 물론 솔로리스트로 활동 중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경기필과 만나 건반 위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보낸 두 작곡가의 곡이 1부에서 조우했지만, 라쉬코프스키의 연주까지 이어진 뒤엔 축전 서곡과 라벨 사이에도 절묘한 어우러짐이 생겼다.

라쉬코프스키, 재즈와 투명한 물의 선율

라벨이 1931년 완성한 이 곡엔 재즈 색채가 짙게 묻어났다. 장쾌하게 마무리한 <축전 서곡>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타악기 슬랩스틱의 채찍 소리와 함께 이상하고 기이한 피아노 협주곡이 시작된다. 슬며시 등장하는 아르페지오(화음을 구성하는 음들이 분산되어 배열되는 분산화음의 일종)와 목관의 선율, 엿박자의 관악이 강렬한 자기주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면 라벨이 의도했던 '유쾌하고 화려한 협주곡'으로 미끄럼틀 타듯 흘러 들어갔다.

축제 분위기로 달뜬 1악장 내내 라쉬코프스키의 독주 피아노 위로 피콜로가 지저귀고, 트럼펫이 반복한다. 그 모든 음표가 놀이 동산의 퍼레이드처럼 설렘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라쉬코프스키는 숙련된 솜씨로 오케스트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도 곡의 분위기를 단숨에 자기 쪽으로 이끌었다. 트릴과 반음계로 이어지는 난해한 음표의 향연에도 그는 장인처럼 음악을 매만졌다. 순간순간 등장하는 하프는 기묘한 신비를 더했다. 목관과 금관의 존재감이 강렬해 귀를 자극할 때도 있었으나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투티로 내달리는 1악장의 피날레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이 찾아왔다.

2악장으로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라쉬코프스키는 라벨이 상징하는 투명한 물의 소리를 살리면서도 이 곡이 담은 재즈 색채를 동시에 담아냈다. 1악장이 풀어진 서정적인 멜로디가 묵직한 고독감을 품고 어렵פות이 들려왔다. 오케스트라는 그저 피아노를 다독이듯 곁을 지켰고, 때때로 위로의 선율을 건넸다. 단정하게 내리누르는 건반엔 라쉬코프스키의 꾸밈없는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피아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려주면서도 곡의 흐름을 놓지 않고 여운을 끌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선 경기필과 김선옥 지휘자의 참모습도 마주하게 됐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은 라쉬코프스키의 장인정신과 오케스트라의 배려에서 음악의 진정성이 묻어났다.

긴 트릴의 질은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요란한 금관과 팀파니가 등장한다. 기묘한 전개로 악기들이 널뛰기할 때, 피아노는 복잡 다단한 손놀림으로 생동감을 발산한다. 순식간에 낮빛을 바꾸는 배우들처럼 수시로 조가 바뀌는 3악장에선 잊고 있었던 1악장의 변칙이 튀어나온다.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관악기에, 강렬한 타악으로 마침표. 객석의 박수는 절로 터졌다.

박종해, 암흑을 뚫고 솟아오른 유쾌한 질주

라벨의 피아노에 이어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라쉬코프스키와는 완전히 다른 색의 피아니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담한 표현력과 단단하고 맑은 소리로 무장한 피아니스트 박종해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이 곡은 쇼스타코비치가 아들의 19세 생일을 축하하려 쓴 곡이다. 20세기 암흑의 시대를 거친 작곡가의 곡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밝고 익살스러운 곡이다. 박종해는 경쾌하고 재치 넘치는 1악장을 씩씩하게 진군했다. 스탈린 체제 속에서 음악으로 견뎌낸 고통을 농담처럼 비튼 쇼스타코비치의 기록들이 피아니스트의 거침없는 질주로 이어졌다. 치고받는 '밀고 당기기'를 즐긴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만남은 장난스럽게 느껴졌다.

이 협주곡의 최대 '히트곡'이기도 한 2악장에선 조용히 빛어낸 쇼스타코비치의 인간적 내면이 고개를 든다.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잔잔한 대화는 어떤 좋은 시절을 회상하는 듯했다. 1부에서 연주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2악장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음표를 채색한 두 피아니스트의 음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요한 체념이 광채처럼 피어오를 때 김선욱 지휘자는 굳어지지 않고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숨죽인 현악과 함께 절제된 감동이 번지는 때였다.

마지막 악장에선 박력 넘치는 '테토(테스토스테론형)로 강한 리더십-추진력-직진적 성향'남' 피아니스트의 질주가 다시 시작했다. 시종일관 폭죽을 터뜨리는 듯한 빠른 리듬 속을 피아노가 흥겹게 내달렸다. 박종해가 쏟아내는 음형들은 거침이 없었고 확신에 가득 찼다. 앙코르로는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이었다. 맑고 단단했지만, 부서질 듯 쏟아내는 음표의 향연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그만의 라벨이었다.

대미를 장식한 곡은 <라 발스>. 김선욱 지휘자는 의도된 소용돌이를 만들며, 그 안에서 왈츠를 추는 사람들을 표현하려 애썼다. 각각의 악기는 아기가자기하게 고개를 내밀었지만, 탁월한 리듬감과 정교한 소리를 빚어내진 못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듯 맞부딪히는 악단이 만든 소리에선 간혹 찬란한 순간이 포착됐다.



불꽃처럼 시작한 피아노 축제의 여운은 짙었다. '피아노'를 마주하는 두 피아니스트의 살아있는 에너지는 각기 다른 빛깔로 음악을 채색하며, 악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때때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미세하게 어긋나고, 지휘자의 섬세하고 절제된 해석을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그럼에도 음악은 생동감 있게 존재했다. 작은 불균형은 있었지만, 피아노라는 우주가 담아낸 순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오래 기억될 미덕이었다.

고승희

헤럴드경제 문화부 기자로 K-POP부터 클래식, 재즈, 뮤지컬, 연극까지 음악과 공연 전반을 취재하며, 국내외 아티스트들과의 인터뷰와 현장 리뷰를 통해 대중 문화의 흐름을 전하고 있다.



가을밤, 음악에 물든 작은공원

경기팝스앙상블 <팝스 콘서트>

2025년 가을, 부천 상3동의 진달래공원에서 펼쳐진 경기아트센터 '예술즐거찾기' 프로그램의 일환인 경기팝스앙상블과 함께하는 <팝스콘서트>는 마치 실내 공연장을 옮겨 놓은 듯한 웅장한 사운드와 생생한 음악으로, 주민들의 일상에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다.

글. 황고은(바이올리니스트 & 고은바이올린 대표) | 사진. 경기아트센터 제공

어느 날 오후, 단지 안 조그만 공원인 진달래공원(부천 상3동)이 잠시 '문화 무대'로 변신했다. 붉고 노란 단풍잎이 살짝 흔들리는 가을바람 속에서, 주민들이 저마다 손을 맞잡고 모여들었다. 공연은 조금 이른 오후, 아직 노을이 완전히 붉어지기 전, 햇살이 부드럽게 무대를 비추던 시간에 시작되었다. 아파트 숲 사이로 울려 퍼지는 앰프의 소리, 음악이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고조되었고, 작은 공원은 그야말로 대형 공연장으로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무대 앞에는 가족 단위로 온 아이들, 연인들, 친구들, 그리고 홀로 와서 고요히 음악을 음미하려는 주민들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모였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음악 앞에선 함께 숨을 고르고, 같은 박자를 나누고 있었다. 가을 햇살은 아직 기지개를 켜고 있었고, 무대 위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자가 첫 음을 내는 순간, 자연스럽게 공간이 숙연해졌다.

소프라노 색소폰이 연주한 첫 곡은 익숙함 속의 감동이랄까 콘서트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대 위로 올라온 것은 마치 한편의 오프닝 영화처럼 시선을 사로잡는 순간이었다.

연주자는 소프라노 색소폰을 들고 등장했고, 첫 곡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Dancing Queen>(ABBA). 아파트 사이 공원 무대라는 장소를 생각하면 어쩐지 어울리지 않을 듯도 한 곡이었지만, 연주자가 자유롭게 애드리브를 더해가며 선율을 이어가자, 관객들은 단숨에 빠져들었다. 마음속에 익숙하게 자리한 그 멜로디가 낯선 악기에서 흘러나오자, 어느새 귀가 열리고 박수가 퍼졌다.

REVIEW



트럼펫의 팡파르는 불꽃처럼 찬란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 경기필하모닉을 이끄는 김선욱 음악감독은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에서 무거움을 지웠다. 가볍게 부서지는 금관의 소리는 억눌린 현실을 벗고 내일로 내달리는 추동 엔진이었다.

'88개의 건반'을 위한 축제가 다시 막을 올렸다. 지난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열린 <2025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단일 악기 최대 축제인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은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과 함께 시작됐다. 축제는 피아노와 피아니스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듯 그간 다양한 '피아노 실험'으로 관객과 만났다. 무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할 만큼 많은 숫자의 피아노가 무대로 올라온 적도 있다. 15대의 피아노, 30명의 연주자(2023년)가 연주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지금도 회자하는 무대다.

라벨과 쇼스타코비치, 두 거장의 그림자 속에서

유독 기념할 만한 '사건'이 많은 올해는 모리스 라벨(1875~1937) 탄생 150주년,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1975) 타계 50년의 의미를 담아 '라벨 150 & 쇼스타코비치 50'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오프닝 콘서트는 주인공인 피아노를 부각하되, 두 거장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으로 시작한 무대는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와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 라벨의 <라 발스>로 이어졌다. 각각의 곡은 유기적으로 엮였다. 무엇보다 두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은 거창하고 심오하기보단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곡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라벨은 "모차르트와 생상스처럼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했고, 쇼스타코비치는 "가장 즐겁게 쓴 작품"이라고 했을 만큼 두 협주곡 사이의 교집합은 충분했다. 경쾌한 시작은 서로 다른 두 피아니스트를 통해 대조의 미학을 보여줬고, 피아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다.

슈퍼스타(피아노)의 등장에 앞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MC처럼 '축전 서곡'은 등장했다. 이 곡의 출발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쇼스타코비치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37주년 기념 콘서트를 위한 짧은 곡을 요청받고 불과 3일 만에 이 곡을 써 내려간다. 스탈린 체제에서 '형식주의의 범죄를 저지른 작곡가'라고 비난받으며 요동치는 날들을 보냈던 쇼스타코비치는 그의 죽음 이후 서랍 속에 잠들었던 악보를 다시 꺼냈다. 초연은 1954년. 경기필하모닉은 모든 음표에 생기 넘치는 역동성을 입혔다. 이날의 축포는 본격적으로 등장할 주인공을 향한 찬가처럼 들렸다.

이제 피아노가 등장할 시간.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피아니스트들의 저력과 잠재력을 길어 올리는 축제인 만큼 오프닝 콘서트에선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했다.

세계 유수 콩쿠르를 휩쓸었고 한국에서 수많은 실내악 무대는 물론 솔로리스트로 활동 중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경기필과 만나 건반 위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보낸 두 작곡가의 곡이 1부에서 조우했지만, 라쉬코프스키의 연주까지 이어진 뒤엔 축전 서곡과 라벨 사이에도 절묘한 어우러짐이 생겼다.

라쉬코프스키, 재즈와 투명한 물의 선율

라벨이 1931년 완성한 이 곡엔 재즈 색채가 짙게 묻어났다. 장쾌하게 마무리한 <축전 서곡>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타악기 슬랩스틱의 채찍 소리와 함께 이상하고 기이한 피아노 협주곡이 시작된다. 슬며시 등장하는 아르페지오(화음을 구성하는 음들이 분산되어 배열되는 분산화음의 일종)와 목관의 선율, 엿박자의 관악이 강렬한 자기주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면 라벨이 의도했던 '유쾌하고 화려한 협주곡'으로 미끄럼틀 타듯 흘러 들어갔다.

축제 분위기로 달뜬 1악장 내내 라쉬코프스키의 독주 피아노 위로 피콜로가 지저귀고, 트럼펫이 반복한다. 그 모든 음표가 놀이 동산의 퍼레이드처럼 설렘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라쉬코프스키는 숙련된 솜씨로 오케스트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도 곡의 분위기를 단숨에 자기 쪽으로 이끌었다. 트릴과 반음계로 이어지는 난해한 음표의 향연에도 그는 장인처럼 음악을 매만졌다. 순간순간 등장하는 하프는 기묘한 신비를 더했다. 목관과 금관의 존재감이 강렬해 귀를 자극할 때도 있었으나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투티로 내달리는 1악장의 피날레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이 찾아왔다.

2악장으로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라쉬코프스키는 라벨이 상징하는 투명한 물의 소리를 살리면서도 이 곡이 담은 재즈 색채를 동시에 담아냈다. 1악장이 풀어진 서정적인 멜로디가 묵직한 고독감을 품고 어렵פות이 들려왔다. 오케스트라는 그저 피아노를 다독이듯 곁을 지켰고, 때때로 위로의 선율을 건넸다. 단정하게 내리누르는 건반엔 라쉬코프스키의 꾸밈없는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피아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려주면서도 곡의 흐름을 놓지 않고 여운을 끌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선 경기필과 김선욱 지휘자의 참모습도 마주하게 됐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은 라쉬코프스키의 장인정신과 오케스트라의 배려에서 음악의 진정성이 묻어났다.



팝스앙상블의 연주는 팝에서 클래식, 가요, 트로트까지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어냈다. 각 연주자는 솔로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 덕분에 공연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호흡했다.

피날레: 폭발적인 사운드와 감동의 브릿지

해가 조금 기울고, 공원의 조명이 은은히 켜지기 시작한 순간, 피날레 무대가 시작되었다. 연주곡으로 선택된 것은 <아름다운 강산>(이선희)이었다. 브라스와 밴드가 어우러져 폭발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냈고, 그 규모와 감동은 '작은 공원'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할 정도였다. 이어서 연결된 곡은 <인연>이었고, 그 브릿지는 관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관객들은 무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끝났다는 아쉬움과 동시에 "아, 정말 잘 왔다"라는 감사함이 함께 떠올랐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여운을 간직한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음 공연을 궁금해했다. "이 정도 수준의 공연을 내 집 앞 공원에서 볼 수 있다니"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경기도민이 누리는 진짜 '생활 예술'

이날 공연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력과 실력의 조화였다. 앞서 언급한 경기팝스앙상블은 팝·클래식·가요·트로트까지 아우르는,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앙상블 단체다. 또한 이 공연이 경기아트센터의 찾아가는 공연, '예술즐거찾기' 사업 중 하나라는 점도 인상적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공연을 접하기 힘들었던 지역에 수준 높은 예술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일

상의 삶 속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공연을 본 주민들은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단지 내 작은 공원이 하루 동안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었고, 여러 세대가 함께 음악을 통해 소통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콘서트는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연대와 예술의 일상화' 그 자체였다.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간의 매력

공연이 열린 진달래공원의 야외무대는 매우 특별한 공간이었다. 가을 단풍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살포시 부는 선선한 바람이 연주자의 음을 안아주듯 흘러다. 그 풍경과 음악이 어우러지니, 무대 위의 연주가 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연인이 손을 잡고 걷어가는 모습, 친구들이 나란히 앉아 웃음을 나누는 모습까지, 이 모든 풍경이 음악과 함께 흐르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았고, 잔잔한 여운과 함께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음악이 지역 주민들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정말 다시 찾아가고 싶은, 진짜 <팝스 콘서트>였다. 이번 공연은 선곡부터 무대 매너, 연주 수준까지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뤄,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세대를 아우르는 선곡 덕분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울며 음악을 나눴고, 친근하면서도 수준 높은 무대 덕분에 '공연장 밖에서 듣는 콘서트'라는 느낌이 아니라 '공연장 안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단지 내 작은 공원이, 그날만큼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변했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닌 기획과 실력의 조합이 만든 결과였다. 부천 상3동 주민들에게 이 가을밤은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이 되었고, 음악을 통해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도 남았다. 그리고 관객들은 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다음 공연은 어디서 열릴까? 꼭 또 가보고 싶다."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음악이, 예술이, 특별한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매일 조금씩 존재했으면 좋겠다.

향고는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부산시향 협연, Osaka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입상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재즈앙상블 오즈컴파니 소속 솔리스트이자 고은바이올린 대표로, 연주와 집필 활동을 통해 음악을 나누고 있다.

이보다 더 명랑할 수는 없다
웃픈 가족의 유쾌한 도전

포포포 유기컬 명랑가족



2025.12.12. 금 - 12.14. 일

평일 19:30 | 주말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작 노우진 작곡 J.ACO 연출 노우성

안무 김정렬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박단추 조명디자인 마선영 사운드디자인 임태형 의상-소품디자인 이수원 분장디자인 조용선 무대감독 강노을 조연출 유기택 기획총괄 김은강 프로듀서 노은영

출연 강아림 이충우 임미정 윤재웅 장정선 김지희 육세진 윤성봉 이애린 연주하 노민혁 채윤희 권승록 김희운 황성연 이운 양지은 이중윤 박인선 김상수 박세은

R석 30,000원 S석 20,000원 예매처 놀티켓 1544-2344 공연문의 경기도극단 031-230-3317 *8세 이상 관람가



INSIGHT

ART AND THE CITY

바르셀로나, 시간의 걸 따라 흐르는 도시와 동방박사의 행렬

ATTRACTION

부산, 영화를 담은 거리들

ARTIST TALK

관객과 30년, 세 배우의 진한 무대 이야기
경기도극단 임미정, 강아림, 이충우 배우와의 인터뷰

ON & OFF

공연, 믿이 되다

ESG & ART SCENE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바르셀로나, 시간의 걸 따라 흐르는 도시와 동방박사의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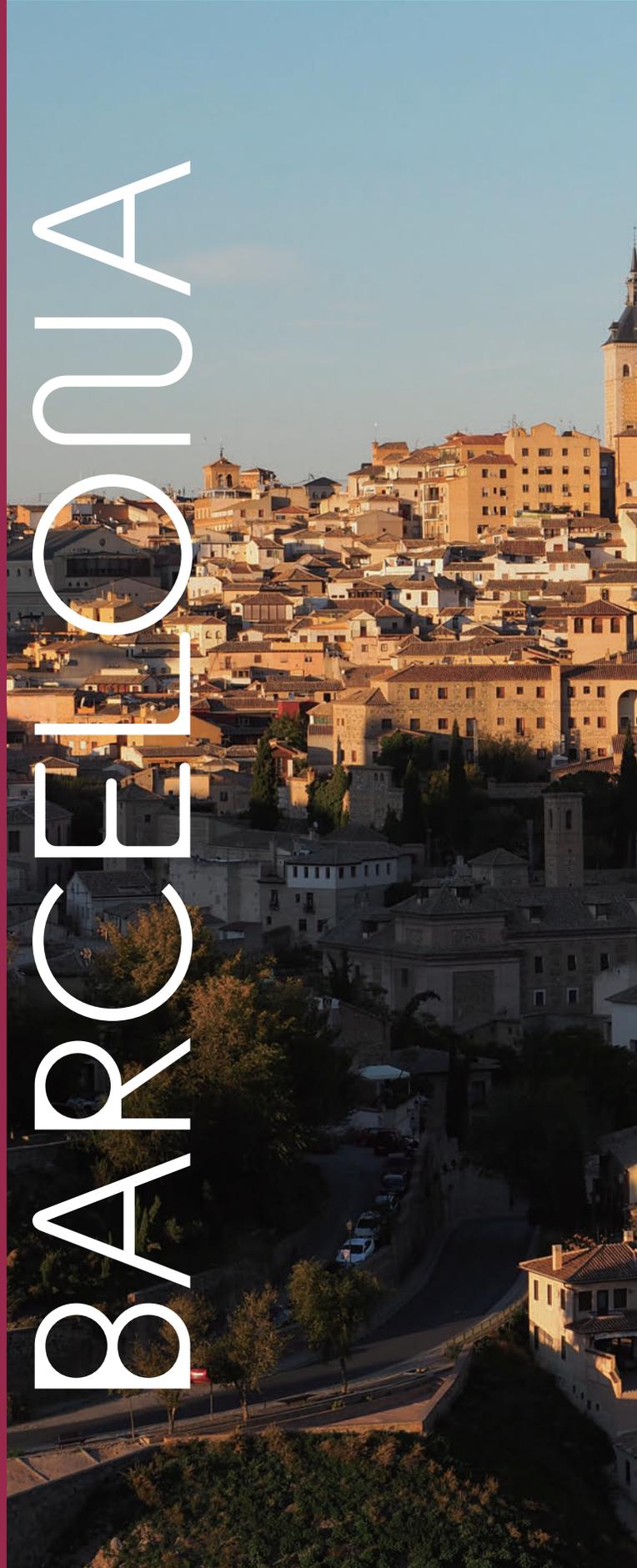
지중해의 바람이 차가워지는 1월 초, 바르셀로나의 거리는 다시 한번 빛으로 물든다. 항구에서 출발한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도심을 행진하며 아이들에게 사탕을 던지는 날, 스페인 최대의 축제, 동방박사의 행렬(Cabalgata de Reyes Magos)이 시작된다. 스페인 전역에서 열리지만, 바르셀로나의 행렬은 유난히 특별하다. 이 도시의 역사와 성격, 그리고 사람들의 정체성이 축제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글&사진. 이은영(여행작가)

동방박사 축제가 보여주는 도시의 정체성

카탈루냐의 수도 바르셀로나를 걷다 보면, 도시는 늘 '두 얼굴'을 지닌 존재처럼 느껴진다. 지중해의 햇살 아래 찬란히 빛나는 해변 도시이자, 동시에 고딕 성당의 그늘 속에서 오랜 세월을 품은 역사 도시.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축제를 통해 도시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매년 초, 바르셀로나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동방박사 축제(Cabalgata de Reyes Magos)'는 이 도시의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어우러지는 상징적 순간이다.

BARCELONA





41° 23' 0" N, 2° 11' 0" E

저녁 노을빛에 물들기 시작한 바르셀로나 전경.

로마의 흔적 위에 세워진 도시

바르셀로나의 기원전 1세기경 로마 제국의 식민도시 '바르키노 (Barcino)'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고딕 지구(Barri Gòtic) 안쪽에 남아 있는 성벽과 거리 구조는 당시 로마 도시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다. 중세에는 아라곤 왕국의 해상 중심지로 번성했고, 르네상스 이후에는 예술과 상업의 교차로로 성장했다. 그러나 프랑코 독재 시절, 카탈루냐 지역은 언어와 문화의 탄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축제와 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가우디의 도시, 그리고 근대의 혁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바르셀로나는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 산업혁명으로 부를 축적한 시민들은 '모데르니스메 (Modernisme)'라 불리는 예술운동을 일으켰고, 그 중심에 안토니 가우디가 있었다.

그의 대표작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종교적 상징이자 도시의 자화상이다. 미완의 성당은 지금도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완성되어 가며 도시의 시간과 호흡을 맞춘다. 가우디 이후의 바르셀로나는 예술이 일상 속에 스며 있는 도시, 다시 말해 삶 자체가 하나의 미학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되었다. 바로 이런 '바르셀로나적 정체성', 즉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인,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태도는 오늘날 축제 문화 속에서도 이어진다.



메디치궁의 <동방박사의 행렬 프레스코화>



바르셀로나 고딱지구.



이 축제는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서로의 존재를 축하하는 의식,
 즉 ‘나눔과 기쁨의 연극’이다.
 성서의 이야기가 현대 도시의 거리에서
 새롭게 재현되는 순간,
 신화는 일상의 일부로 되살아난다.



동방박사 축제의

기원과 의미

스페인 전역에서 1월 6일은 ‘주현절(Epifania)’로, 예수가 탄생한 후 동방박사 세 명이 그를 찾아와 경배한 날로 기념된다. 전날인 1월 5일 저녁, 바르셀로나의 거리는 거대한 퍼레이드 행렬로 가득 찬다. 이 행사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스페인 어린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다려지는 날이다. 산타클로스 대신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사르’ 세 박사는 각각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상징하며, 세계의 다양성을 대표한다. 이날 그들은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다. 바르셀로나 항구의 불빛 아래, 시장이 직접 박사들을 맞이하며 “도시의 열쇠”를 건네주는 장면은 언제 보아도 장엄하다. 이어 수십 대의 화려한 마차와 수백 명의 퍼포머가 거리를 메우며, 사탕을 던지고 음악을 연주한다. 아이들은 종이 왕관을 쓰고 “Reis! Reis!”를 외치며 그 사탕을 받는다. 이 축제는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서로의 존재를 축하하는 의식, 즉 ‘나눔과 기쁨의 연극’이다. 성서의 이야기가 현대 도시의 거리에서 새롭게 재현되는 순간, 신화는 일상의 일부로 되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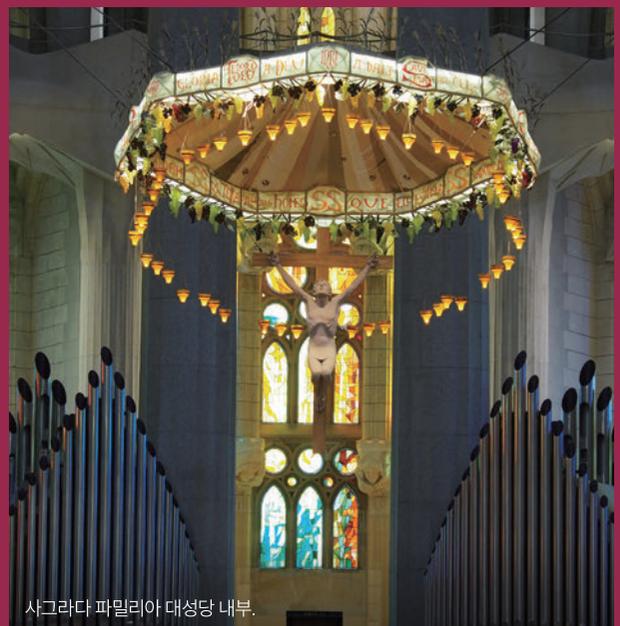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Sagrada Família).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유명하다.

바르셀로나의 정체성 속에 흐르는 '공존의 미학'

바르셀로나의 동방박사 행렬이 다른 도시들과 조금 다르다. 이곳에서는 단지 종교적 전통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년 다양성, 평등, 환경보호, 포용 같은 현대적 메시지를 담는다. 최근에는 환경 문제를 인식하며 사탕 대신 재활용 가능한 선물을 나누거나, 장애인 단체가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바르셀로나가 단순히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로 미래를 해석하는 도시임을 보여준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역사에 안주하지 않는다. 축제는 전통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새롭게 덧입히는 창조적 실험의 장인 셈이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내부.



기억과 축제가 만들어내는 도시의 시간

바르셀로나 사람들에게 '역사'는 박물관 속에 갇힌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 숨 쉬는 존재다. 동방박사 행렬의 사탕 하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나에도, 이 도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간다.

바르셀로나는 로마와 고딕, 스페인과 카탈루냐, 전통과 현대가 한 도시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동방박사 축제>를 보고 있노라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는 단지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이 흐르는 생명체처럼 느껴진다. 로마의 성벽과 현대의 건축, 아이들의 웃음과 가우디의 곡선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곳. 그 위를 동방박사들이 천천히 걸어간다.

2026년, 동방박사의 행렬을 기다리며

겨울의 끝자락, 지중해 바람이 차가워지는 1월의 바르셀로나. 어둠이 내리면 항구로부터 밝은 불빛의 행렬이 천천히 들어온다. 사람들은 길가에 모여 종이 왕관을 쓰고, 아이들은 손을 흔든다. 이 도시에 처음 온 사람이라도 이 순간만큼은 바르셀로나의 시민이 된다.

축제의 발자취 위에서, 바르셀로나는 다시 자신을 이야기한다. 역사는 그렇게 축제를 통해 되살아난다. 동방박사의 행렬은 과거를 추억하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 있는 역사'로 만드는 예술이다.



바르셀로나 동방박사 축제. 사진 출처: 바르셀로나 동방박사 축제 사이트 (<https://www.barcelona.cat>).

이은영

문화 행정학을 전공하고, 지역 축제에 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하이난 100배 즐기기』 등을 펴낸 작가로 온라인에서는 '새벽별'이란 필명으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 인문학 관련 여행기를 기고하고 있다.

부산, 영화를 담은 거리들

2013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 나에게 부산은 영화의 도시다. 4천 명의 관객과 함께 야외 대형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고, 바다를 바라보며 영화인들과 부산 음식을 나누는 시간. 영화제 개최 장소와 가까운 해운대 바닷가에는 '영화의 거리'도 있어 더욱 즐겁다.

글&사진. 나리카와 아야(작가, 전 아사히신문 기자)

4천 명과 함께 보는 야외 스크린

부산영화제는 매년 10월 초에 열리는데 올해는 추석 연휴와 겹쳐서 9월 17~26일에 열렸다. 나는 그 직전에 일산과 파주에서 열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았었는데 시상식이 9월 17일에 있어서 올해는 부산영화제 개막식에는 못 가고 18일부터 참가했다.

부산영화제는 일본 영화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기회만 있으면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영화인은 많고 특히 개막식 레드카펫의 화려함은 배우들에게 매혹적이다. 올해도 와타나베 켄(渡辺謙), 사카구치 켄타로(坂口健太郎), 아야노 고(綾野剛) 등 일본 유명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걸었다.

무엇보다 영화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영화의전당의 야외 스크린이다. 가로 24m, 세로 13m의 대형 스크린으로 본 영화는 오래 기억에 남는다. 객석은 최대 4천 명이라고 한다. 4천 명이 하나의 영화를 함께 보는 경험은 특별하다.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부산 센텀시티의 야경, 사진 출처:셔터스톡.

올해는 야외 스크린에서 정우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 <장구>를 봤다. 부산과 부산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 코미디 영화로 많은 관객들과 함께 웃으면서 봤다. 야외 스크린은 어두워져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엔 토크 행사를 하고 상영은 밤에만 한다. 사실 매년 추워서 떨면서 봤는데 올해는 9월이라 시원해서 딱 좋았다.

<어느 가족>(2018)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 감독은 부산영화제 단골이다. 거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참가하는데 <브로커>(2022)라는 한국 영화를 연출한 것도 부산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인들과 친해졌기 때문이다. 2016년 부산영화제 때 고레에다 감독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부산영화제의 매력을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바다가 가까운 것과 음식이 맛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칸영화제도 베니스영화제도 바다에서 가깝다. 영화의전당은 해운대에서 가깝다. 바다가 있는 것만으로도 축제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운대해수욕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했었다. 그것이 부산영화제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없어졌다. 부산영화제 개막 직전이나 기간 중에 태풍을 맞는 일이 많아 그때마다 야외 무대가 큰 피해를 입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같다.

그런데 영화인과 영화제 참가자들은 대부분 해운대의 호텔에 숙박하기 때문에 바닷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영화인과 함께 호텔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치맥 파티를 한 적도 있고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사장을 함께 걸으면서 감독 인터뷰를 한 적도 있다. 눈앞에 바다가 있어서 개방적인 기분이 드는 것 같다.

해운대
'영화의 거리'

고레에다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요리는 간장게장이다. 인터뷰 때 자기가 자주 가는 간장게장 맛집을 알려줘서 가봤다. 역시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식당이었다. 고레에다 감독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일본 배우 오다기리 조(オダギリジョー)가 왔다. 영화제 스태프 없이 가족과 함께 와서 그것도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주문하는데 언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서 기꺼이 도와드렸다. 이 또한 영화제의 즐거움이다. 해운대의 맛집에 가면 영화인을 만날 때가 적지 않다.

식당을 나왔더니 '영화의 거리'가 보였다. 유명 배우와 감독들의 핸드프린팅도 있고 영화 관련 조형물과 그림들이 있어 영화 팬이라면 여기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다. <신세계>(2013), <해



2025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상영 전 무대인사 현장.



2019년 부산일본인학교에서 강연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고레에다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꼽은 간장게장.



광안대교가 바다로 보이는 부산 해운대 전경. 사진 출처: 셔터스톡.

㉞

올해 내가 참석한 행사 중에
**‘포럼 비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30주년 기념 포럼’은 영상산업센터에서 열렸고,
 이병헌 배우의 토크 행사는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열렸다.
 모두 센텀시티에 있다.**
 이렇게 영화 관련 시설들이 모여 있는 것은
 센텀시티가 부산국제공항 부지였던 곳이기 때문이다.
 도쿄 한복판에 새로 그런 장소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㉟



히비야 스텝 광장 야외 상영회(도쿄영화제, 2022). 사진 출처: visit-chiyoda.



2025 BIFF '액터스하우스' 행사에 참여 중인 이병헌 배우.

운대>(2009)와 같은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의 포스터가 타일로 전시돼 있어서 더더욱 ‘영화 도시 부산’을 느끼게 된다.

영화의전당은 센텀시티에 있어서 점심은 센텀시티에서 먹을 때가 많다. 센텀시티는 새로운 동네다 보니 그렇게 부산이 느껴지는 식당은 많지 않다. 그래서 보통 저녁은 해운대에서 먹게 된다. 해운대에는 전통시장도 있고 꿈장어, 낙곱새, 돼지국밥, 북엇국 등등 부산 로컬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다. 부산 음식은 부산영화제의 즐거움에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야외 대형 스크린, 바다, 맛집... 이런 것들이 부산영화제의 장점이라면 이 모든 것이 안타깝게도 도쿄국제영화제에는 없다. 도쿄영화제는 사실 부산영화제보다 훨씬 전에 시작했다. 부산영화제는 1996년에 시작했는데 도쿄영화제는 1985년에 시작했다. 도쿄가 10년 이상 선배다. 그런데 어느새 부산영화제가 훨씬 존재감이 커졌다.

도쿄영화제가 치명적인 것은 대도시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중심이 되는 건물도 없고 여기저기 영화관을 빌려서 개최하기 때문에 일체감도 없다. 영화의전당 앞 길가에는 상영작 포스터가 크게 전시돼 있어서 영화제의 분위기가 나는데 도쿄영화제는 영화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자만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다.

도쿄는 바다에 접해 있는 도시지만 영화제 개최 장소는 바다에서 거리가 있고 맛집이야 도쿄에 얼마든지 있지만 로컬 음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별로 없다.

또한 영화의전당 주변엔 영화 관련 시설이 많아 영화제의 여러 행사를 관련 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올해 내가 참석한 행사 중에 ‘포럼 비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30주년 기념 포럼’은 영상산업센터에서 열렸고, 이병헌 배우의 토크 행사는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열렸다. 모두 센텀시티에 있다.

이렇게 영화 관련 시설들이 모여 있는 것은 센텀시티가 부산국제공항 부지였던 곳이기 때문이다. 도쿄 한복판에 새로 그런 장소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부산영화제에 바라는 것, 거리에 남은 숙제들

부산영화제의 장점만 들었지만,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 매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는 328편 상영됐는데 티켓 판매 시작과 거의 동시에 매진됐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접숙이 안 되는 사이에 매진됐다. 이건 일본에서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말하는 문제점이다. 개인 아닌 업체가 사들이는 것 같다. 결국은 직전에 캔슬이 나와서



30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7-26 September 2025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사진 출처: 셔터스톡.

BIFF 주 무대인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에는 다양한 상영관과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





부산 남포동 BIFF 광장은 유명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이 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



2025 BIFF가 한창인 부산 센텀시티 거리 풍경.



BIFF 광장 전경. 사진 출처: 셔터스톡.

볼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 영화 티켓 없이 오는 것은 부담스럽다. 몇 명은 티켓을 못 구해서 부산행을 포기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산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산영화제는 옛날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옛날은 2012년에 영화의 전당이 개관하기 전을 뜻한다. 옛날엔 동네 축제처럼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티켓을 못 구하는 것도 그렇고 부산 사람들이 느끼기에 부산영화제가 옛날보다 먼 존재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규모가 커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산 사람들의 사랑을 못 받는 영화제가 되면 안 된다.

부산영화제 기간 전후에 부산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행사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부산영화제는 올해부터 경쟁부문인 ‘부산 어워드’를 만들었는데 수상작을 폐막 후 행사로 부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사를 여는 것은 어떨까? 부산 사람들이 부산영화제를 ‘우리 영화제’라고 느낄 만한 행사를 열면 좋을 것 같다.

사실 그런 시도를 이미 하고 있다. 영화의전당이 생기기 전에는

남포동에서 부산영화제가 열렸었다. 그래서 남포동 일대를 ‘BIFF 광장’이라고 부른다. 남포동에서 영화제가 개최됐던 당시 영화인과 관객들이 남포동의 포장마차에서 밤새도록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고 한다. 부산 사람들이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올해는 BIFF 광장 야외무대에서 전야제가 열렸다. 전야제에서는 부산과 관련된 영화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부산이 사랑하는 영화인’ 시상식이 있었는데 <국제시장>(2014)의 윤제균 감독과 <짱구>의 감독 겸 주연 배우 정우가 수상했다. 이런 부산 사람들을 위한 행사는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나리카와 아야(成川彩)

일본 고베대학교 법학부에서 공부했고, 오사카대학교 대학원에서 통번역을 배워 한국어 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했다. 아사히신문에서 문화 담당으로 연극과 뮤지컬 등을 취재했고, 퇴사 후 한국으로 건너와 다양한 매체에 기사와 칼럼을 집필 중이다. 지은 책으로 『어디에 있든 나는 나답게』, 『지극히 사적인 일본』 등이 있다.

관객과 30년,

세 배우의 진한 무대 이야기

경기도극단 임미정, 강아림, 이충우 배우와의 인터뷰

NATURAL-BORN ACTORS



왼쪽부터 강아림, 임미정, 이충우 배우

경기도극단 신작 뮤지컬 <명랑가족>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도전을 이어가는 세 명의 배우가 있다. 누구보다 경기도극단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잘 알며, 오래도록 경기도민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문화 동반자로서 활약해 온 배우들이다. 완성되지 않은 배우, 대기만성형 배우, 소금 같은 배우라는 자기소개이자 다짐처럼, 오늘도 무대를 향해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는 임미정, 강아림, 이충우 배우를 만나본다.

글. 편집실 | 사진. 박성수(싸우나스튜디오)



임미정

1996년 입단 /
대표작 <날숨의 시간> 외



강아림

1997년 입단 /
대표작 <매화리극장> 외



이충우

1999년 입단 /
대표작 <맹진사댁 경사> 외

Q. 경기도극단과 함께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강아림 사실 저는 무용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안무를 맡거나 배역의 빈자리를 메꾸는 일로 연극과의 인연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 1993년에 <소리 없는 만가>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대사가 많은 연극을 하면서 연극에 깊이 빠져들게 됐지요. 그 후 광복 50주년 기념 <남한강>이라는 작품에 조안무로 들어갔다가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됐고, 이후 1997년 경기도극단과도 함께하게 됐죠.

이충우 제 이야기도 좀 특별해요. 어렸을 적 아버지와 함께 TV로 '토요명화극장' 등을 보며 '나도 배우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꿨지요. 하지만 입시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한동안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다시 도전해 보고 싶더라고요. 남들보다 8년이나 늦게 연극영화과에 도전한 셈이었는데, 6개월을 미친 듯이 준비한 끝에 합격했어요. 그러고는 대학을 마치자마자 바로 경기도극단에 입사하게 됐죠.

임미정 저는 1992년에 연극을 시작했고, 1996년에 경기도극단에 입단했어요. 저도 비전공자예요. 어릴 때 웅변을 배웠는데, 국어 교과서에 희곡 작품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늘 저를 시키셨어요. 그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연극반 무대에서 본 이후 무작정 극단을 찾아다녔어요. 여러 작품에 참여하며 대회에서 연기상도 받게 됐고, 그 추천으로 경기도극단 연수 단원으로 들어왔지요. 재미있는 건 6개월 후에 연수 단원 제도가 없어져서 나갔다가, 다시 단원을 뽑을 때 오디션을 봐서 정식 단원으로 들어온 거지요.

Q.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임미정 <날숨의 시간>이에요. 탈북민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제가 탈북민 중 한 사람 역할을 맡았어요. 탈출 장면을 위해 정말 많이 뛰어다녔죠. 대극장 객석에서부터 무대 위 가장 높은 곳까지,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뛰어다녔어요. 실제로 탈출하는 기분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만큼 관객 반응도 좋았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작품이었어요.

이충우 단연 <맹진사댁 경사>이지요.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관객들과 만났던 작품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처음에는 '삼돌이'로 시작해서, '미안'을 거쳐, 마지막에는 '박참봉'을 했죠. 각각 3년에서 5년씩 맡았는데, 세 역할 모두 개성이 확실했어요. 같은 작품 안에서 세 가지 다른 캐릭터로 변신하며 관객들 앞에 서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이 작품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기에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에요.

강아림 저는 2014년에 했던 두 작품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매화리극장>과 <걱정된다, 이 가족>이에요. <매화리극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작품이었고, <걱정된다, 이 가족>은 정신건강 프로젝트로 순회공연을 다녔던 작품이에요. 두 작품 모두 무거운 주제였지만, 현실의 문제를 다룬 만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작품들이었어요. 순회공연을 하는 내내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Q. 평소 모습은 어떠신가요? 혹시 배우가 아니셨다면?

이충우 저는 아마 연구직에 있었을 것 같아요. 천성적으로 연구하고 몰두하고 집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연극 작업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단편적으로 대사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심리를 함께 표현하려고 노력하죠.

임미정 평소 말이 많지 않은 편이죠. 26살에 여기 들어서서 지금까지 연극 하나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배우인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강아림 의외로 연극 하는 사람 중에 내성적인 사람이 많아요. 저도 사실 내성적이었는데, 오래 이 생활을 하다 보니 조금 변한 것 같긴 해요. 연극이나 무용을 안 했더라도, 어쨌든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예술가가 되었을 거예요. 십 대에는 수도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Q.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미정 갑자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는 늘 같이 해왔어요. 다들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배우들이예요. 어떠한 작품, 어떠한 역할을 맡겨봐도 잘 해낼 수 있는 배우들이지요.

이충우 두 분은 저한테 가족과 같아요. 집사람을 만나 두 아이를 키웠지만, 그보다 더 오랜 시간 같이 했거든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싸울 때는 또 싸우고. 지금은 '척하면 척'하는 정도는 됩니다.

강아림 진짜 20년 넘게, 20대 시절부터 봐왔으니까요. 두 분 다 분석적인 배우이고 다재다능하고 노력하는 배우예요. 저

는 두 분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발전하는 것들을 보아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떤 배역을 맡더라도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Q. <명랑가족> 공연을 준비 중이십니다. 기대하거나 고민하는 부분은?

이충우 <명랑가족>은 트로트와 뮤지컬적 요소가 있는 작품이에요. 노래, 춤, 대사를 다 해야 하는 작업이죠. 개인적으로는 '심혜룡'이라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극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캐릭터지요. 이 작품이 관객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롱런 할 만큼 잘 만들어졌으면 해요.

임미정 노래와 춤을 여태껏 많이 해 왔지만, 이번 작품은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살짝 겁이 나요. 물론 어떤 배역이든 맡으면 잘 해낼 거예요. 배역을 맡기 전 늘 그렇듯이, 마음은 좀 떨리지만요.

강아림 오랜만에 음악극이고, 뮤지컬 전문 연출과 작가, 프로덕션이 제대로 붙어서 올리는 작품이에요. 관객의 호응을 크게 얻으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저 역시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다만 너무 오랜만이라 노래와 춤이 부담되긴 하네요.

Q.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나 작품이 있으신가요?

강아림 사실 저는 마당극을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탈춤반에 들어가서 마당극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여기서도 마당극을 많이 했었고 이 두 분하고도 같이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

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건 그런 열린 연극 같은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면 어떤 작품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충우 저는 노래와 춤, 해학, 웃음이 들어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명랑가족>이 딱 그래요. 그래서 이번 에야말로 애정을 가득 담아 신나게 연습에 임하고 있어요.

임미정 저는 그동안 정극을 많이 해왔어요. 나이가 들면서 깊이가 쌓인 만큼, 셰익스피어나 체호프 같은 작품들을 제대로 한번 다시 연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Q. 경기도극단 소개 글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침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로 도민과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충우 <맹진사댁 경사>를 하면서 정말 곳곳에 많이 다녔어요. 요양원, 심지어 공연장이 없는 조그마한 방 같은 데서도 공연했지요. 눈앞에서 관객들이 같이 느끼고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강아림 저도 비슷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2000년대 초반 파주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공연했던 적이 있어요. 비닐장판 마루에 겨우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바닥에 테이프를 하나 짝 붙여서 '여기는 무대고, 여기는 객석이에요'라고 하고는 공연을 했어요. <사랑장터>라는 1시간짜리 악극이었는데, 한 열댓 살 먹은 아이가 불편한 몸으로 누워서 보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에서 우는 거예요. 그때 '아, 이거 우리 해야 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다가가는, 찾아다니는 공연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죠.

이충우 우리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기도민과 같이 문화 향유를 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이 노력이 중요해요. 지금은 관객에게 그저 '보러 오세요'라는 상황만 되는 것 같아, 아쉬워요.



무용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면이 있는데, 연극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냥 보고 쉽게 느끼고

어떤 기쁨이나 감정들을 느끼고 가는 것,

그게 연극의 힘인 것 같아요.



강아림 피곤하죠, 사실. 수원의 노인 시설이며, 연천의 복지관이며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도 공연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Q.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극의 힘은 무엇인가요?

임미정 한 마디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강아림 비슷한 이야기지만, 거리감이 없다는 점이에요. 무용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면이 있는데, 연극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냥 보고 쉽게 느끼고 어떤 기쁨이나 감정들을 느끼고 가는 것, 그게 연극의 힘인 것 같아요.

이충우 맞아요. 공감의 힘이 크죠.

Q. <명랑가족> 공연을 관람하실 관객분들에게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강아림 좋은 무대를 위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이충우 많이 웃고 손뼉 치고 즐기십시오. 가족의 소중함,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정 온 가족이 함께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하고 즐겁고 유쾌한 공연이에요. 행복하게 봐주세요.

Q. 마지막으로, '나는 ()한 배우다'라는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강아림 나는 완성되지 않은 배우다. 언제까지 연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성되지 않음'이라는 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퇴직 후에도 연극을 계속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진다면, 완성을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갈 것이라는 의미로 완성형이 아닌 미완성형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충우 나는 대기만성형 배우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정말 내 옷처럼 딱 맞는 배역을 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 그 옷에 맞는 역할들이 하나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전하고 관객들이 좋아하는 배우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대기만성형 배우라고 했습니다.

임미정 나는 소금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작품에서든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모든 배우가 마찬가지지만, 있으므로 더 맛있고 더 맛깔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공연, میم이 되다

더 이상 공연은 무대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관객의 스마트폰 렌즈, SNS 숏폼, GIF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때로는 원래 공연보다 더 멀리 퍼져나간다. 오픈서베이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숏폼 콘텐츠 시청 경험자 비율은 82.7%로, 10명 중 8명이 숏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세대는 밈 등을 통해 공연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밈'이 된 공연은 공연장을 넘어서 온라인 성지로 순식간에 자리 잡는다. 이에 예술인들의 유튜브 콘텐츠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이 새로운 시대, 공연 예술계도 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올라타고 있다.

정리. 편집실

THE PERFORMANCE BECOMES A MEME



벨 소리를 명곡으로

주목받은 피아니스트 케이찬

땡 땡 땡~. 공연 중 울린 관객의 휴대폰 벨 소리. 누구나 민망해질 상황이지만, 피아니스트는 당황하지 않고 그 소리를 멋지게 공연의 한 부분으로 연주해 냈다. 유튜브 채널 'けいちゃん/Keichan'에 공유된 이 영상은 숏폼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진짜 프로의 대처", "이게 예술가다"라는 찬사를 받았다. 케이찬(Keichan/けいちゃん)은 일본의 프리스타일 피아니스트이자 유명 유튜버다. 공연장에서의 돌발 상황이 오히려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되는, 밈의 긍정적인 힘을 보여준 사례다.

(이미지 출처: 유튜브 채널 'けいちゃん/Keichan')



"난 목찌빠를 전공했다 사실"

뮤지컬 <리타>의 부활

2015년 뮤지컬 <리타>에서 최재림, 이경수 배우가 노래한 한 장면이 지난해 알고리즘을 타며 대유행했다. 여주인공 리타의 첫 남편 가스파로와 재혼한 남편 베페가 폭력적인 그녀와 살기 싫어서 목찌빠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다. 코믹한 가사에 수준급 가창력, 감미로운 피아노 라이브가 어우러진 이 장면은 조회수 1,0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유튜브 채널 '뮤지컬 랜드'에 올라온 이 영상은 숏폼을 통해 9년 전 공연된 뮤지컬을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전공이나 취향을 넣어 패러디하며 이 영상을 즐겼다.

(이미지 출처: 유튜브 채널 '뮤지컬 랜드' / 오른쪽 사진은 유튜브 채널 '엔믹스'에 올라온 패러디)





관객의 대답, 오히려 좋아~
ميم 마케팅 적극 활용한 뮤지컬 <난쟁이들>

뮤지컬 <난쟁이들>은 2023년 제작사 랑컴퍼니가 올린 숏폼 콘텐츠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공주 호출 씬(공주님들~)'에서 관객이 착각으로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자, 선한국 배우가 웃참하며 애드리브로 대처하고 서동진 배우가 신데렐라 역으로 나와 "나보다 먼저 온 공주가 있었어?"라고 받아치는 장면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영상 외에도 뮤지컬 <난쟁이들>은 '이웃나라 왕자들 등장', '우리 정체를 묻는다면 대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 등 다양한 숏폼이 각각 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막강 한 달 전부터 대부분의 공연이 매진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지 출처: 유튜브 채널 'COMPANY RANG')



틱톡 밈이 브로드웨이 공연으로
<라따뚜이>: 더 틱톡 뮤지컬>

반대로 틱톡 밈이 실제 브로드웨이 공연으로 탄생한 놀라운 케이스도 있다. 이 일은 2020년 26세 교사 에밀리 제이콥슨(Emily Jacobsen)이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는 쥐 레미(Remy, 디즈니-픽사의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 캐릭터)를 주제로 작사·작곡한 노래 영상을 틱톡에 업로드하며 시작되었다. 아파트 청소를 하다가 작곡한 이 노래는 성공적으로 바이럴 되었고, 다른 사용자들이 틱톡의 '듀엣' 기능을 활용해 새로운 배경음악이나 멜로디를 추가하고, 안무를 만들고, 무대 파노라마를 구축했다. 한 사용자는 가짜 공연 팸플릿까지 디자인했다. 이것이 브로드웨이의 관심을 끌었고, 실제 뮤지컬 프로덕션으로 제작까지 된 것이다.

(이미지 출처: 유튜브 채널 'BuzzFeedVideo')



댄스 챌린지가 글로벌 흥행 이끌어
<위대한 개츠비>의 '뉴 머니(New Money)'

지금도 틱톡이나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서 '뉴 머니(New Money)' 댄스 챌린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 머니(New Money)'는 <위대한 개츠비>의 뮤지컬 넘버로 고음과 중독성 있는 안무로 바이럴되며 2024년 하반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위대한 개츠비>는 한국 프로듀서가 리드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브로드웨이에서 성공 이후 숏폼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해 뉴욕, 런던, 서울 3개 도시에서 동시 공연되는 성과를 거뒀다. 1920년대 화려한 시대상을 담은 무대와 강렬한 넘버의 흥겨움이 숏폼 콘텐츠로 완벽하게 소화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고전 작품을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지 출처: 유튜브 채널 'GreatGatsbyMusical')



예술단들의 적극적 행보
'사자보이즈' 선보인 경기무용단

맘을 만들어내는 유쾌한 숏폼 콘텐츠는 일반 유저에서 시작해 전문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로 확장되며, 이제 예술단들의 마케팅과 홍보 수단으로도 활발히 제작되고 있다. 각 예술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5초~3분 숏폼으로 편집된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유하거나, 배우 인터뷰 등을 업로드하며 관객과의 친밀감 형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 경기무용단도 공연 일정에 맞춰 유행 중인 '사자보이즈'(<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의 패러디 숏폼을 제작해 올리는 등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유튜브 채널 '각! tv 경기아트센터')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기후위기와 팬데믹 이후 전 세계 문화예술계는 ESG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태양과 바다'부터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의 환경 혁신까지, 예술은 더 이상 관조의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과 연대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글. 김주원(큐레이터, 한빛교육문화재단 이사)

'예술과 ESG'의 동행이 절실한 이유

전 세계 문화예술계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다수의 예술가 및 기관 전문가들은 단연 ESG(환경(E)·사회(S)·거버넌스(G))를 말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세계 주요 관련 기관 ESG 이니셔티브 제정과 운영에 대한 뉴스는 이제 필수적인 것처럼 되었고, 팬데믹 이후 전례 없이 빈번한 이상 기후 등으로 인류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 혹은 관련 포비아 확산을 멈추게 할 우리 모두의 실천과 상호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실존적 위기를 겪은 이후 세계의 주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들은 기존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전시, 공연 등의 기관 활동과 역할이 이전과 동일할 수 있는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예술(기관)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근본적이고도 실제적인 방법적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간 미술계에서 열린 국제 비엔날레와 전시 등은 전 지구적 차원의 주요 의제로서 'ESG'에 기반한 운영과 조치가 절실함을 반증한다. 예컨대, '가속도-인류세의 예술'(타이페이 비엔날레 2014), '일곱번째 대륙'(이스탄불 비엔날레 2019), '당신과 나는 다른 행성에 살고 있다'(타이페이 비엔날레 2020) 등 각종 국제 비엔날레와 전시 등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인간과 비인간의 연대 등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우리의 실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한 예술의 역할을 환기시킨 사례로서 2019년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58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La Biennale de Venezia)의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리투아니아관의 '태양과 바다(마리나) Sun and Sea (Marina)'는 깊은 울림을 준다. 전시장에 인공 해변을 조성한 뒤

특별할 것 없는 해변의 오후 풍경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오페라의 형태를 띤 퍼포먼스다. 작품은 20여 명의 배우가 휴양객을 연기하며 일광욕을 즐기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공놀이를 하는 등 평화로운 여름휴가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휴양객들은 태양 아래 누워 느긋한 하루를 보내며 노래를 부르지만 해변의 풍경엔 묘한 불편함이 교차하고 그들의 노래는 산호초의 백화(白化), 해수면 상승, 쓰레기로 오염된 바다와 같은 지구의 경고를 가사로 담고 있다. 노래와 별개로 해변에서 나누는 휴양객들의 대화는 이 같은 경고와 현실에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을 재현한다. 정작 지구는 병들어가고 환경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소소한 일상의 안위만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직면한 지구의 지속 불가능성을 막거나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일상에서의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태양과 바다(마리나)'는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 큐레이터인 루시아 피트로이스티(Lucia Pietroiusti)가 감독하고, 리투아니아 출신 아티스트 루길레 바르즈쥬카이테(Rugilė Barzdžiukaitė), 바이바 그라이니테(Vaiva Grainytė), 리나 라펠리테(Lina Lapelytė) 세 명이 공동 창작했다. 사실, 이 작품의 구상은 바이바 그라이니테가 리투아니아 숲속을 걷다가 얻은 통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바이바는 12월 겨울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던 중 잘 자란 살구 버섯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인 리투아니아의 12월 기후 조건에서는 결코 자랄 수 없던 살구 버섯의 생장은 바이바에게 묘한 당혹감과 공포감을 안겼다. 기후와 그에 따른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이 산책의 경험은 '태양과 바다(마리나)'에도 노래로 등장하며, 눈앞에 펼쳐진 해변의 풍경 또한 언젠게 검고 흉측하게 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예술과 ESG’ 실천들

이른바 ‘기후비상사태’에 대한 예술가들의 예술(작품)을 통한 경고는 오늘날 전 지구적 차원의 기업 및 기관들의 ESG 실천의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 비엔날레, 도큐멘타 등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국제적 전시나 공연 등의 문화행사들 가운데 ESG를 창의성의 도구이자 사회적 책임 실현의 장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는 사례들이 왕왕 있다. 예술의 혁신적 ESG 실천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예술이 문명사적 전환을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이기도 하다.

미국 출신의 개념미술 작가 에이미 볼킨(Amy Balkin, 1967-)은 2012년 독일 카셀에서 열린 국제 전시 ‘도큐멘타13’에서 오염이 예측되는 지구 ‘대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시도) 작업으로 유명하다. 손에도 잡히지도 않는 ‘대기’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이를 보존 관리한다는 가설로 출발한 볼킨의 ‘지구 대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프로젝트는 급격한 대기질의 오염을 막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하나의 예이다. ‘도큐멘타13’이 개최되는 기간 내내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는 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부터 유산으로서의 기준 적합도 충족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여러

비정부 기구 및 정부, 186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국 관리들과의 지속적인 접촉 과정 등의 모든 노력이 전시되었다.

결국 ‘지구 대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성공하지 못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작가 에이미 볼킨 역시 애초에 지구 대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구생존을 둘러싼 예술가의 절박한 행동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고 현재 지구환경에 대한 각 국가의 정책, 기관별 대비 프로토콜의 복잡성과 모순을 강조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성공적 사례들? ‘연대’와 ‘지속’이 관건

2021년 9월 10일 영국 런던 V&A뮤지엄은 ‘지속가능성 전략 및 2035년 탄소 배출 순 제로(zero) 목표’를 선언하며, 전시 디자인으로 인한 폐기물 줄이기 등을 시작으로 미술관의 행동주의 공간으로의 전환 행보를 보인다. 영국의 극장과 공연 예술계 역시 ESG 이니셔티브 제정과 운영 행보에 적극적이다.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극장과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작품 제작, 지속 가능한 공연 운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 방안을 담은 안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리투아니아관의 ‘태양과 바다(마리나) Sun and Sea(Marina)’ 전시 장면,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내서인 『시어터 그린북』을 만들어 지속가능성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인류가 마주한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는 일종의 매뉴얼, 즉 가이드북은 문화예술계 현장의 실질적 지표가 된다.

한편, 국내의 경우 아르코미술관의 주제 기획전 ‘일시적 개입’은 주목할 만하다. 폐기물 나눔과 관련한 이 전시는 자원 순환 문제를 논하면서 사회적 기업과 예술가 콜렉티브 ‘피스오브피스’가 협업하였다. 전시 종료 뒤, 총 여섯 작품에 쓰였던 26개의 목재 테이블, 선반 등의 물품은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해 기증되는 등 재활용되었다. 전시에 사용된 휴 등은 관람객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통해 지구환경 문제를 환기하였고 관람객 스스로 연대와 실천, 행동의 주체임을 상기시켰다. 아르코미술관은 향후 전시 폐기물을 관련 단체나 소재 은행에 기증하고, 리플릿 등 홍보물은 오프라인 제작 대신 온라인 노출을 지향하는 등 실제적인 여러 조치의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24년 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가 발간한 『문화예술부문의 지속가능 가이드북』 역시 의미 있는 ESG 운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안내서에는 1)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기(Reduce) 2) 다시 사용하기(Reuse) 3) 용도를 바꿔 사용하기(Repurpose) 4) 재활용하기(Recycle) 5) 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하기(Localise) 6) 수평적이



2022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 주요 작품들, 사진 출처: 아르코미술관 보도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부문의 지속가능 가이드북』, 사진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고 협력적인 논의와 실행(Collaborate) 등 지속 가능한 창제작을 위한 여섯 가지 기본 방향성이 담겨있다.

전 세계 음악인들의 축제 가운데 하나인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Love the Farm, Leave No Trace” 원칙에 따라 환경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재활용률 98%를 달성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 태양열 발전소 구축, 관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의무화 등을 통해 연간 2,000톤의 탄소 배출 절감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농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유기농 식자재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 협력으로 경제적 순환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오션 스페이스(Ocean Space)’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해양 과학자와 예술가의 협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문제를 다루며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하는 프로그램 및 전시를 하였다. 유네스코와의 파트너십 아래 진행된 전시는 관람객이 직접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위의 두 사례는 ESG의 ‘E(환경)’와 ‘S(사회)’를 융합한 생태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예술’(기관)은 ‘연대’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요 가치를 텅 빈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이다. 미술관과 공연장 안팎에서 ‘ESG’ 가치가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되는지는 어쩌면 관람객 모두의 인식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

김주원

대구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에서 학예연구실장을 지냈다. 홍익대학교 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 CCA 기타큐슈 초청 펠로우로 활동했다. 2002년부터 현대미술 분야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전시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GGAC

STORY

ZOOM IN

렌즈에 담은 예술, 온라인으로 전하는 감동
<예술방송국> 유지우·조정우 PD

GGAC NEWS

CALENDAR

EPILOGUE



렌즈에 담는 예술, 온라인으로 전하는 감동

<예술방송국> 유지우·조정우 PD



왼쪽부터 조정우·유지우 PD.

경기도의 문화예술에 ON-AIR 불빛을 밝힌다. 경기아트센터 예술방송국은 경기도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공연 영상을 제작하고, 누구나 쉽게 경기도의 모든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기아트온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이라는 더 넓은 무대 속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감동을 시청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누구보다 뜨겁게 촬영부터 편집, 플랫폼 운영까지 예술방송국의 모든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두 PD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편집실 |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Q. 예술방송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조정우 안녕하세요. 예술방송국에서 공연 촬영과 편집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나눔팀 소속 조정우입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열리는 공연 현장을 찾아가 촬영하고, 그 영상을 편집해서 최종 콘텐츠로 완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유지우 같은 팀 소속 유지우입니다. 저는 예술방송국에서 플랫폼 운영을 맡고 있어요. 완성한 영상 콘텐츠를 최종 검수하고, 제목 및 캡션을 작성해서 편성 일정에 따라 경기아트온 플랫폼, 즉 홈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경기아트센터 예술방송국은 어떤 곳인가요?

유지우 경기도 곳곳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무대를 기록하고, 그것을 더 많은 관객과 연결하는 곳이에요. 공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순간의 예술을 영상으로 남겨 언제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죠. 단순히 기록을 넘어서, 경기도 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정우 저는 예술방송국을 '예술과 관객 사이의 다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공연장에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 경기도에 이런 훌륭한 예술가들이 있는지 몰랐던 분들이 우리 채널을 통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기 편한 영상 제작을 제1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Q. 조정우 PD님, 예술 콘텐츠를 촬영하고 편집하실 때 특별히 고려하는 점이 있다면요?

조정우 컷을 단순히 이어 붙이기만 하는 것은 '편집'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편집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둘째, 감정을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지. 편집한 줄 모르게 쓱쓱 화면이 잘 지나가면서 보여줄 건 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잘 된 편집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아직은 카메라를 다루는 데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가 피사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 촬영마다 느껴요. 촬영하면서 흔들리고, 초점이 안 맞더라도 최선을 다해 대상을 포착해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완성본에서 고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편집하려고 합니다. 다소 서툰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공감'의 여지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Q. 유지우 PD님은 플랫폼 운영에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유지우 편성 일정에 맞춰 업로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가장 신경 쓰고 있어요. 저희 경기아트온은 매주 금요일 오후 5

시에 새로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1분, 2분 늦어지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채널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기에 꼼꼼히 하려 신경을 기울이는 편이에요.

Q. 가장 공들여 작업했던 영상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조정우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면서 편집을 하다 보면,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제까지 진행했던 편집 모두 공들여 작업했지만, 가장 재밌었던 편집은 브라질리언 재즈밴드 '세룰리안 블루' 팀이었어요. 노래를 하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감이 잘 담겨있어서 멤버 간의 호흡과 재즈라는 특성을 더욱 살리는 편집을 하려고 했죠. 이 과정이 무척이나 흥미로웠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생소한 분야인 만큼 조회수가 높지 않아 속상하기는 했답니다.

유지우 저는 사소한 성과들을 달성했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릴스의 조회수가 급증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런 보람을 느낀 순간들을 통해, 사소한 캡션 작성 하나하나에도 보다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Q.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나, 의외의 반응을 얻었던 경험이 있나요?

유지우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서는 대중음악 콘텐츠가 가장 경쟁력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성악이나 클래식 연주 같은 콘텐츠가 좋은 반응을 끌어낼 때가 많아요. 클래식 장르는 대중음악 장르에 비해 제작되는 콘텐츠 수가 적어서, 우수한 클래식 공연을 양질의 콘텐츠로 제공했을 때 좋은 반응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Q. 두 분이 함께 일하시면서 업무적으로 가장 잘 맞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조정우 유지우 PD님은 저보다 먼저 입사를 하셔서 아는 게 더 많으세요. 그리고 꼼꼼하셔서 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보완해 주셔서 일하면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아요. 특히 서무 업무에 능통하셔서 행정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유지우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업무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느꼈어요. 하지만 그 차이 덕분에 맡은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각자의 방식이 달라도 목표는 하나였다는 점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어요.



Q. 경기도의 예술을 알리는 데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강점은?

조정우 면적이 넓은 경기도의 각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을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 장애 예술인들도 소개하고 있으니, 이 점도 강점인 것 같고요.

유지우 경기도의 예술은 경기도 내에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경기도의 예술이 경기도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장에서 나아가, 경쟁력을 지닌 예술로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경기아트온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 플랫폼만큼, 누구든 어디서든 경기도의 예술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 되죠.

Q. 앞으로 예술방송국에서 시도해 보고 싶은 새로운 콘텐츠나 기획이 있다면요?

유지우 저는 경기민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직비디오 제작을 진행해 보고 싶어요. 경기민요는 경기도 지역의 정서와 언어,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는 예술이지만, 대중이 접하는 방식은 공연장이나 교과서 속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 세대의 노래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

금의 감각으로 '다시 보고, 다시 듣는'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예술방송국의 강점은 공연 실황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예술이 새로운 형식으로 유통되고 기억되는 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점이니 까요.

조정우 무대 위의 예술인들을 위주로 촬영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소개나 소감 등을 추가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이 무대 영상을 조금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Q.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정우 다양한 예술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업무를 하며 새삼 느껴요. 예술방송국은 최선을 다해서 예술인들을 담고 있으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은 계속된다!

유지우 경기도에는 정말 많은 예술인이 있고, 그들이 만들어 낸 무대는 모두 각자의 매력을 뽐낸다는 것을 일하면서 느끼게 돼요. 제가 느낀 것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좋댓구알(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하시고, 경기도의 예술을 즐기시길!

차이콥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
P. I. Tchaikovsky, Romeo and Juliet Fantasy Overture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43
S. Rachmaninov,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43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b단조, 작품74, '비창'
P. I. Tchaikovsky, Symphony No.6 in b minor, Op.74, 'Pathétique'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VI

지휘 — 김선욱

피아노 — 조성진



비창

PATHÉTIQUE

티켓

서울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2만원

수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미취학아동 입장불가)

예매 interpark 티켓 수원 1544-2344 서울 1544-1555

예술의전당 1668-1352

문의 031-230-3314

2025. 12.11(목) 7:30PM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12.12(금) 7:30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경기아트센터, 우수정책 최우수상 수상

도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 정책 '최우수' 평가

경기아트센터가 창단한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가 경기도 공공기관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3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2025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 정책·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서면 심사와 도민 심사를 통과한 총 15개 사례에 대해 최종 시상했다. ▲도민 서비스 혁신 ▲사회적 가치 창출 ▲책임 경영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경기아트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의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경기아트센터는 2024년 전국 최초의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재능 있는 장애예술인 40명을 선발하여 지휘자 1명과 강사 16명의 지도하에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공연 및 초청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정서 회복에 기여하여, 공공 문화예술 분야의 선도적 모범사례가 되었다. 창단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 또한 도모했다. 도민 대상 공모를 통해 단체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후원과 다양한 재능기부 등 서포터즈 제도를 통해 '도민이 직접 만든' 오케스트라가 되고자 했다.

김상희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이번 수상은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그리고 경기도민의 뜻깊은 동행이 증명되는 순간과도 같다"며, "경기아트센터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발맞추고,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경기도형 문화예술허브'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2025 G-ARTS 프리뷰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 공연장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및 G-ARTS 브랜드 최초 공개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공연예술 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2025 G-ARTS 프리뷰 컨퍼런스>를 12월 3~4일 개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G-ARTS 사업의 브랜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공연장 네트워크 구축과 시·군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사전 단계로, 국내외 공연 관계자와 예술가, 도내 공연장 등이 참여해 공연예술 창작·유통·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논의하는 첫 공식 행사였다.

12월 3일에는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예술 시장을 개척한 사례와 지역 중심 협력 모델을 다각도로 소개했다. 강연에는 ▲버지니아 하임 호주공연예술마켓 총괄감독 ▲에마누엘 르진 리에주 극장 자문 겸 국제프로젝트 매니저 ▲최준호 국제인형극연맹 한국본부 이사장(춘천인형극제 예술감독)이 참여했다.

12월 4일에는 공연장 관계자 라운드테이블과 연석회의가 진행됐다. 시·군 간 공연장 네트워크 강화, 창작과 유통 지원의 균형, 중앙-지방 간 지원 격차 해소 등 경기도 공연예술 현장의 핵심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G-ARTS 브랜드 선포는 경기도 공연예술 생태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세션으로, 도내 공연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2026년부터 '경기 공연예술 어워즈'와 '경기 공연예술 마켓'을 포함한 G-ARTS 사업을 본격화해, 우수 콘텐츠 확산과 지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공연예술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방한(訪韓) 외국인, 국악으로 한국의 매력 느낀다

경기아트센터, <Feel Korea:Gugak Experience> 시범 운영

경기아트센터가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Feel Korea : Gugak Experience>(한국을 느끼다 : 국악 체험)가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예술과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지역 특화형 문화 콘텐츠로, 지난 9월 첫선을 보인 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운영했다.

<Feel Korea: Gugak Experience>는 국악 공연 관람과 더불어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이다. 국악 실내악, 전통연희 등의 공연을 감상하고, 악기와 한복 등을 직접 체험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 향후 경기도의 주요 관광 명소와 연계한 콘텐츠로 확장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깊이 있는 문화 경험을 도우며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공연 관람뿐 아니라 국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고, 전통 놀이까지 체험해 볼 수 있어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여, 체험형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전통예술의 체험형 콘텐츠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기아트센터는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정규 상설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경기도 대표 전통문화 체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여행객(FIT, Free Independent Traveler)을 위한 문화관광 결합 상품 개발 및 글로벌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경기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1회 경기 장애인프리 페스티벌 <The Open Symphony> 개최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가 만든 전국 최초 장애인프리 음악 축제

모두가 함께 즐기는 포용적 문화예술축제인 '제1회 경기 장애인프리 페스티벌 <The Open Symphony>(오픈 심포니)'가 지난 11월 24일(월)부터 30일(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일대에서 열렸다. '장애인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동등하게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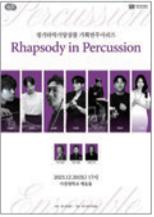
이번 축제는 도내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가 한데 모여 무대에 오르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프리 음악 축제로,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 가능한 공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아트센터가 2024년 창단한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도내 8개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릴레이 방식으로 공연했다. 또한, 장애예술인 시각작가의 작품 전시를 함께 마련해 음악과 미술을 아우르는 통합형 축제로 구성했다.

'제1회 경기 장애인프리 페스티벌 <The Open Symphony>'는 페스티벌의 이름처럼, 모든 관객이 자신의 감각과 속도에 맞춰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관람 환경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관객 동선을 조정하고 이동지원 인력을 배치해 물리적 장벽을 낮추고, 조명·음향에 민감한 관객을 위한 '릴렉스 존'을 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수어 통역 ▲자막 제공 ▲점자 프로그램북 ▲해설 내레이션 ▲음성해설 기반 '미니어처 터치투어'(악기·무대 체험) ▲장애인프리 북토크 등 다양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경기아트센터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전문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 12 |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완창판소리무단 강산제 수궁가 2025. 12. 28.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S-ARTS Preview Conference G-ARTS Preview Conference	2 [제12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콜렉션 I]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 수궁가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3 2025 경기 연출가전 선정작 시리즈 <슬픔의 틈새> 16:00 용인 큰어울마당 2025 경기 연출가전 선정작 시리즈 <홍도야 우지마라> 14:00 부천 오정아트홀 2025 G-ARTS 프리뷰 컨퍼런스 홈페이지 참고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4 2025 G-ARTS 프리뷰 컨퍼런스 홈페이지 참고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 경기 연출가전 선정작 시리즈 <갈을 찬 선비> 19:30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 서커스 One Fell Swoop <By A Thread>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5 [제12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콜렉션 II] 식물은 일하지 않는다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부활 40주년 콘서트 2025. 12. 26.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6 2025 경기도무용단 예술즐거찾기 MOVE, 네 가지 시선 어린이 창의성 공연, <춤, 상상보따리> 15:00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부활 <40주년 콘서트>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경기 연출가전 선정작 시리즈 <막차 탄 동기동창> 19:00 부천 소극장 극예술공간
7 박창근 <장르 With Mrs.아보카도>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경기 연출가전 선정작 시리즈 <막차 탄 동기동창> 16:00 부천 소극장 극예술공간	 아보카도 2025. 12. 27.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비천 12.11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명랑가족 2025. 12. 27.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1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I <비창>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Infinite play 2025. 12. 21.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2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I <비창>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5 경기 연출가전 선정작 시리즈 <안락한 유품 정리사> 19:00 오산문예회관 소공연장 경기도극단 뮤지컬 <명랑가족>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3 경기도극단 뮤지컬 <명랑가족>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사유하는 계절 - 용인> 16:00 경기국악원 국악당 YB REMASTERED 3.0 : Odyssey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4 YB REMASTERED 3.0 : Odyssey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경기도극단 뮤지컬 <명랑가족>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YB REMASTERED 3.0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 발레 <호두까기 인형>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7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 발레 <호두까기 인형>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Rhapsody in Percussion 2025. 12. 21.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경기타악기양상블 기획연주 시리즈 <Rhapsody in Percussion> 17:00 가천대학교 예음홀 2025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 한국무용 <탈, 탈 탈어 - 얼굴너머>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 경기타악기양상블 기획연주 시리즈 <Rhapsody in Percussion> 17:00 가천대학교 예음홀 2025 경기 청년예술 기회무대 - 한국무용 <탈, 탈 탈어 - 얼굴너머>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1 2025 크리스마스 콘서트 <산타할아버지의 음악선물> 16:00 파주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 주현미 데뷔 40주년 콘서트 <The Queen>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산타할아버지의 음악선물 2025. 12. 21. 16:00 파주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	 주현미 데뷔 40주년 콘서트 <The Queen>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TRACK 12.26. 27.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5 이은결 <TRACK> 14:30,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6 이은결 <TRACK>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청년예술 기회무대 연극 <우리 읍내>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7 이은결 <TRACK> 14:00, 18: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청년예술 기회무대 연극 <우리 읍내> 15: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우리 읍내 2025. 12. 26.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9  지브리 OST 콘서트 2025. 12. 27.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31 지브리 OST 콘서트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31 지브리 OST 콘서트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티켓 문의 031-230-3441~2(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 상기 공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과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양한 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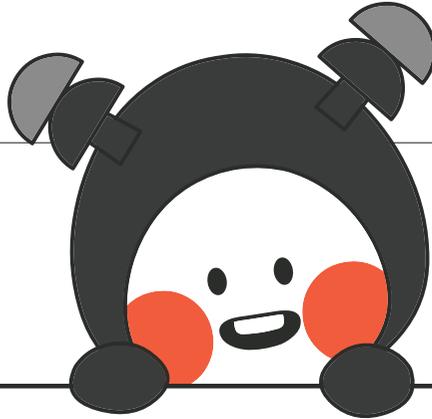


QR 코드를 통해서도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	-----	-----	-----	-----	-----

				1		3 뮤지컬 <사랑의 하츨핑>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	--	--	---	--	---

4 뮤지컬 <사랑의 하츨핑>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9	10
---	--	--	--	--	---	----



11	<p>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p> <p>2026년에도 경기아트센터에서</p> <p>좋은 공연으로 만나요!</p>					17 뮤지컬 <미세스 닷아웃파이어>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	--	--	--	--	---

18 뮤지컬 <미세스 닷아웃파이어>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9	20	21	22	23	24
---	----	----	----	----	----	----

25	26	27	28	29	30	31
----	----	----	----	----	----	----



· 경기아트센터 신입 인턴 객공이 2차 이모티콘 출시!
네이버 OGG 마켓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과 만나다

<예술과만남>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의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숨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가장 핫한 이슈를 만나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경기아트센터 대표 매거진 <예술과만남> 콘텐츠와 프로모션 소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감 넘치는 공연 열기를 전합니다. 풍성한 SNS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마련한 문화 예술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tube.com
깍! TV 경기아트센터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내 손안에서 펼쳐지는 명작 공연 실황, 브이로그, 인터뷰 등 다양한 현장 소식과 공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www.ggac.or.kr
경기아트센터는 다양한 공연과 예술 문화를 선도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국내외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지역 예술인과 관객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우리 가까이, 삶을 이야기하는 예술”

배우도 PD도 모두 우리와 같이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꽤나 거창하거나 새로운 것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다.

올 한 해 치열하게 지내온 보통의 일상 속-

우리는 과연 얼마나 웃음 짓고 또 어디에서 활력을 얻었을까.

새해를 기다리며, 다시금 예술과 만날 감동의 순간을 기대한다.

12+1월호 ARTIST TALK / ZOOM IN 인터뷰 현장에서

“그렇게 완벽한 화음에 어떻게 매혹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Le Dauphine Libere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전문가82인선정 연말클래식 추천공연 1위!

THE
LITTLE SINGERS
OF PARIS

12월 17일(수)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